

법 왜곡죄

재판 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사법3법은 개혁 아닌 사법 파괴법이다”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민주주의가 탕크나 총이 아닌 사법 제도로 파괴되고 퇴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후폭풍을 일으켰다. 민주주의 근본인 3권 분립을 본질부터 훼손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사법3법을 민주당 정권은 ‘사법개혁’이란 미명으로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생략하고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으로 하루 한 건씩 지난 2월26일부터 28일까지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3월5일 순방 결과를 보고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시켰고, 12일 관보에 공시함으로써 곧바로 시행됐다.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한 변호사가 법왜곡죄 시행을 전제로 공시 전인 3월2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형법123조2항)로 고발한 것. 시행 첫날 재판소원도 36건 접수됐고, 10일 만에 100건을 넘었다.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받을 처지가 됐는데 일선 판사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이 권력의 압박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재판·기소·수사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4%가 사법3법을 반대했다.

사법제도 개편은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며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사법3법 시행으로 사법체계가 망가지고 국민피해가 커질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8년간 지탱해온 민주공화국 헌정의 핵심가치인 3권 분립·사법부 독립·형사사법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체계가 강그리 무너졌다. 이 와중에 검찰제도를 완전히 분해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까지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친명계와 친청계의 극한대립을 벌인 검사의 보수수사권은 뒤로 미룬 채.

민주당은 사법3법 졸속법안을 정

호사협회장 등 수많은 재야 법률가들은 “사법파괴법”이라며 반대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누더기 수정을 해도 여전히 위헌적이다”면서 ‘법왜곡죄’에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의 수치이며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통

일반 국민은 피해보고 권력자·범죄자의 ‘호신용’

략적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사법3법 시행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깨졌다. 행정·입법을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접수한 다수당 민주당 정권은 독재의 길이 열렸다. 사법3법은 현 정권의 사법장악으로 권력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방시켜 절대권력의 폭정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았다. 그래서 이 사법3법은 처음부터 위헌요소와 후폭풍 때문에 친여진보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 일부 진보언론도 반대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전·현직 대한변

령의 거부권 행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주의와 3권 분립이 붕괴된다”며 법왜곡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수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법왜곡죄에 반대했다.

현직 법관들도 ‘사법3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부장판사는 “개혁이란 정당한 목적과 누군가가 입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초과 우월적 공익이 있어야 한다. ‘사법3법’은 이 가운데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제도 파괴 외에는 없어 보인다. 최종 피해자는 법관 아닌 국민이다”고 비판했다.

판사들도 양심에 따른 재판보다 권력의 눈치를 살필 것이고, 범죄자도 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법원은 약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입맛대로 사법부 판결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의

미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리지만 전부는 아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정치체제 중 덜 나쁜 제도일 뿐이다. 아테네는 민주주의로 흥했고 민주주의로 망했다. 기원 전 아테네의 민주정을 보고 철학자 플라톤은 ‘우민정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폭정’이라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일찍이 예고했다. 사법파괴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을 히틀러 나치의 독일, 차베스·마두로의 베네수엘라, 폴란드, 헝가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로 자리 잡았다.

사법3법은 1, ‘법왜곡죄’는 형법 신설법으로 판사나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한다. 2,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이다. 사실상 4심제다. 3,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은 현재 14명인 대법

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이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의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 법조문치고 이렇게 객관성이 없고 모호한 추상적인 문언은 형법에서 처음 본다. 법조문이 추상적이니 권력의 입맛대로 ‘귀결이 코결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에 반하거나 비판적인 수사나 기소, 판결할 경우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형사법의 전반적인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우선 판사와 검사, 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이 급증할 것이다.



박용운 보도사진 '인간애상'을 만든 박용운(가운데 휠체어 타신 분)국장과 뒷줄 가운데 대상수상자인 인천일보 이재민기자 그리고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심사위원들과 시상식을 함께 했다.

이재민 기자 '세상에서 가장 어린 배웅'

대한언론인회 제32회 '박용운 보도사진 인간애상' 대상



인천일보 이재민 기자 인간애상 수상작 트로피

대한언론인회는 3월2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제32회 박용운보도사진 인간애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종세회장은 영예의 인간애상을 받은 인천일보 사진부 이재민 기자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기금출연자인 박용운 국장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수상작은 2025년 11월4일 인천계양구에서 열린 아크부대 파병환송식에서 한 대원이 가족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아내가 낳은 지 얼마 안되는 아들과 함께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는 장면이 헤어짐의 애잔함을 전하고 있다.

박용운 보도사진 인간애상은 사진

사고 위주의 보도사진이 지면을 차지 하던 시절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인간애가 담긴 사진이 많아야 한다는 고귀한 뜻으로 전 동아일보 사진부 박용운국장이 사재 1억원을 출연하여 만든 상이다.

대한언론인회 박용운 보도사진 인간애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5일, 1년간 보도된 전국의 일간신문사진 1000여점에서 10여작품을 엄선, 심사위원들의 최종 투표로 당선작을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심사위원은 전민조(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송영학(전 중앙일보 사진부장), 윤석봉(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정재필(전 한국일보 사진부장), 조명동(전 경향신문 사진부장), 이병훈(전 조선일보 사진부



장), 강두모(전 국민일보 사진부장), 박종서(전 서울신문 부국장)회우 등이다.☞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 '호위무사' 될 우려

<1면에 이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범죄자들이 판·검사와 경찰을 괴롭히기 위해 '법외곡죄'를 걸면 되기 때문이다. '법외곡죄'로 고소·고발하고 수사결과가 불기소로 끝나면 이를 또다시 '법외곡죄'로 걸어 고소·고발하는 악순환이 가능하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남발되더라도 '법외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서 무고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되풀이 돼 경찰의 수사업무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재판 역시 그렇지 않아도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더 늦어져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보게 된다. '법외곡죄'는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와 수사관을 괴롭힐

수 있는 법으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시간만 늦추는 악법기능을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외곡죄' 시행으로 세상은 온기가 사라지고 냉혹함만이 판칠 것이다. 수사나 재판도 마찬가지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일 빵 몇 개 훔친 어머니나 공장 휴게실에서 초코파이 한 개 꺼내먹은 근로자에 대한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어렵게 될 것이다.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도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법을 잔혹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민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묻는다.

'재판소원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위험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로 구성 한다'고 적시한 조항을 들어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법조계는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재판소원법' 시행으로 헌법재판소에 한번 더 소원하는 사실상 4심제이기 때문이다.

'재판소원법' 시행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신뢰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는데 법원 권위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소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데 있다. 재판은 형사·민사·행정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 증거의 증명력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형화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더 큰 문제는 '재판소원법'에 따르면 최소한 3개월 이내에 각하든 본안판단이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시설이나 인력이 갖추어졌는지 의문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필

요한 법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친여성향의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이 채워져 여당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될 우려를 걱정하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민주당 정권은 '사법3법'시행으로 폭주의 날개까지 달았다. 3권을 장악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원하는 법률은 다 통과시키면서도 부족함이 남았는지 국회 의석 비율로 나는 상임위원장 자리 전부를 차지하겠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카키스토크라시(kakitsocracy·극악정치, 최악(kakisto)과 지배(crazy)에서 유래한 카키스토크라시는 사회에서 가장 자격이 없는 집단이 통치하는 정부를 말한다)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다수라는 선출된 권력의 힘으로 폭주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그 속도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

이승만만 몰랐던 3·15 부정선거 음모

‘4·19 66주년’ 함의와 성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대전 3·8민주의거> 66주년 기념식이 3월 8일 대전시강당에서 김민석 총리, 권오을 보훈부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이양희 전의원, 최우영 충남대 명예교수, 권오덕 전 대전일보주필 등 3·8 의거 주역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960년 3월 8일 대전고교생 1천여 명이 자유당의 3·15부정선거 획책을 규탄했던 의거를 정부가 4·19 혁명의 기폭제로 평가해 국가기념일로 기린 것이다. 윤한중(KBS국장), 정구종(동아일보국장), 권오덕(대전일보주필), 김정남(평화신문국장) 등 20명의 중견 언론인을 배출한 3·8 주역들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난 80대 노인이 되었으나 대한민국은 빈곤·부조리 등 전근대적 모순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우뚝섰다. 4·19 66주년을 맞아 자유당 말기 3년 국무회의록을 검증, 4·19 의거를 재조명, 성찰한다.



박석홍
본지 논설위원
전 문화일보 국장

대한민국 역사는 혁명사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전근대 신민을 현대 국가의 국민으로 탈바꿈시킨 정치혁명의 제일 보였다. 일제, 미·소 군정, 스탈린의 한반도 공산화를 극복한 독립국가를 건국하고 농지개혁으로 경제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침략으로 ‘입헌적 국가이성’(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이 위기에 몰렸지만,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지켜서 1960년 학생혁명이 가능했다.

4·19의거 1년 전 한국은 국민총소득(GNI)이 83달러에, 정부 재원 45.5%가 미국 원조였던 가난한 나라였다. 미국과는 긴장 관계였다. ‘반공포로 석방’ ‘단독복진’ 등 ‘벼랑 끝 외교’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승만은 1954년 7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 미국의 종전을 비판하고 대(對) 중공 강경정책을 촉구하는 순회강연에 이어 한·일국교 정상화 의제로 정상회담 중 두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까지 있었다.

6·25 종전을 위해서 미국이 이승만을 감금하는 ‘에버레디 플랜’과 ‘한국군 쿠데타’까지 검토했던 긴장국면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 대통령 중임제 한 철폐 개헌, 신 국가보안법 제정, 경향신문 폐간 등 정치사건 속출에 이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

의 4·19 의거로 이승만권위주의 정권은 막을 내렸다.

3·15선거는 내무부와 도 경찰국이 투표 총계까지 조작했던 부정선거였다. 이기붕이 840만 명의 지지로 압승했다고 발표하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대도시로 번졌고, 이승만의 망명으로 4·19의거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후 김창렬 한국일보 편집국장의 아버지 김인서(金麟瑞)목사가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

를 변호함』이란 저술로 이승만을 변호했을 뿐, 4·19의 진실은 밝히지 못했다. 115명의 학생을 희생시킨 4·19 주범들에 대한 단죄도 하지 못했다.

1979년 반 유신운동으로 휴교 상태인 서울대에서 만난 많은 교수들이 국가 변혁을 걱정했고 김철준교수는 대통령 생명까지 위협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 정권은 김진만 등 부정축재자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경고로 국정쇄신을 대신했고 끝내 10·26 참변으로 무너졌다. 낙향한 신두영 감사원장은 1980년 취재기자에게 박대통령이 정권말기 결기가 사라졌다고 증언하고, 국무원 사무국장으로 1958년 1월부터 1960년 7월까지 기록한 자유당 말기 3년 국무회의록과 관련 자료 등을 넘겨주며 4·19 정리를 당



4·19혁명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4·19 민주 묘역.

부했다. 이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승만은 4·19 1주일 전까지 3·15부정선거 음모를 몰랐으며, 4·19 전에 사퇴를 결심 했음이 기록돼 있다.

마산 해변에서 김주열군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1960년 4월12일) 열린 36회 국무회의록에는 이승만이 “대

방) 두 장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나쁜 상황(선거 부정의 진상)을 숨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대통령의 선거 부정 추궁, 자유당 해체, 재선거, 헌법 개정논의가 제기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권력

4·19는 전근대 모순 극복한 선진화 디딤돌 장관들 배신·민중의 저항에 이승만 下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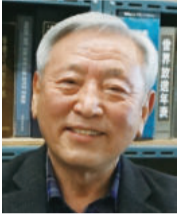
통령을 싫다고 하면 내가 사면(辭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히고 “선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 추궁하지만 내무·국방·문교장관들이 동문서답하는 허위 보고가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이 사실이나는 기자의 질문에 신두영 원장은 국무회의 대화를 받아 적은 노트도 보여주며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36회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이라도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면 대통령이 사퇴하고 4월19일 115명의 학생들이 희생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록의 거짓 보고는 4월 19일 자정에 주한 매카네기 대사가 미국에 보낸 보고서로도 입증된다. 매카네기 보고서에는 이승만이 “내가 신뢰하는 흥(내무)·김(국

만)을 신봉하고 서대문만 쳐다보는 장관들의 거짓말로 많은 학생이 희생되고 건국 대통령이 망명했다고 신 감사원장은 밝혔다. 모든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김창룡 특무대장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3·15 부정선거와 학생 희생은 막았을 것이라는 가설도 나왔다.

이 국무회의록은 4·19전후 3년간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의 산업화를 위한 준비 과정도 소상히 기록했다. 경제개발계획 확정, 아파트건설 등 도시 정비, 무역, 원양어업, 조선사업, 정유 비료공장 건설, 한국사정리, 핵무기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박정희를 도운 신현확·송인상·최규하·신두영 등은 이승만이 이 시기에 길러낸 인재들이다.☞

초고령 사회 ‘간병의 늪’ 서 신음한다

■ 世窓에 비친 세대 ‘노노케어’ 시대 ‘영 케어러’-‘간병살인’까지



이규섭
본지 편집위원·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서울 구로구 M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70여명. 요양보호사 80여 명이 2교대로 돌아가며 돌본다. 이곳에 근무하는 임순영(가명·67) 요양보호사는 경력 11년의 베테랑급이지만 “출근하면 늘 긴장되고 힘들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신체 활동 지원입니다.” 세면, 목욕, 기저귀 교체와 배변 등을 케어하는 게 녹록지 않다. 하루 세끼 식사와 두 차례 간식을 챙긴다. 환자에 따라 일반식, 죽, 미음 등을 제공하며 투약을 돕는 것도 일과다. 실버 체조, 색칠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돕는다. 우울증 등 정서적 변화도 체크한다. 근무일지를 꼼꼼하게 쓰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기 일쑤다.

낮은 임금에 극한 직업으로 꺼려
요양보호사는 극한직업이다.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고강도 업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311만 명. 이 가운데 실제 종사자는 22.5%인 69만 명에 불과하다. 약 70%가 60대 이상이다. 70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요양보호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수급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21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지만 현장의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 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다. 참여자 중 90% 이상이 여성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월 기본급은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215만원. 야간조에 포함되면 월 20만~40만 원가량 수당이 붙는다. 요양보호사는 이제까지 경력 인정의 사각지대였다. 1년 경력이나 20년 경력이나 월급이 같았다. 올해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이 추가되어 경력 3년 미만 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환자들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사진 이규섭)

5만원, 3년 이상 경력자는 기간에 따라 월 6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더 받게 됐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신설되어 선임으로 지정되면 월 15만원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낮은 임금뿐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90% 넘는 불안정한 고용, 감정노동이 결합된 열악한 근로환경도 요양보호사를 꺼리는 요인이다.

의 식사·배변·목욕 등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청소·식사 준비·설거지 등 가사를 돕는다. 수급자가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때 동행도 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이나 생업 지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밖이다. 수급자나, 수급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가정부 부리듯 하는 사례도 종종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다. 돌봄과

과산 ‘간병 전쟁’ ‘간병 난민’ 등 고령화시대 ‘간병의 늪’에 빠졌다는 보도(조선일보 2월 19일자)다. 간병은 치료받는 급성기 환자를 병원과 가정에서 돌보는 ‘의료 돌봄’이다. 안정기 환자의 식사·외출을 돕는 ‘요양 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요양은 국가 지원을 받지만 간병은 제도권 밖이다. 모든 간병 비용은 환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2023년 발표한 월 평균 간병 비용은 370만원. 같은 해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60만 원으로 월급이 간병비에 못 미친다. 요즘 대학병원의 경우 24시간 개인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월 400만 원은 쥐어하는 게 현실이다. 노모의 10년 간병에 집 잡히고 빚만 2억 원 졌다는 60대 아들의 ‘간병 전쟁’ 사례가 실감나게 와 닿는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간병비 급여화(건보적용)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건보 재정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한다.

요양병원 간병인 79%가 60대 이상 노인 ‘통합 돌봄’ 시행 ...공적 선별 관리에 기대

노인이 노인을 돌보다 보니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건강의 적신호가 온다. 젊은이들은 극한직업이라 기피하고,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만 돌봄노동에 유입되면서 ‘노노케어’는 고착화되고 있다.

노노케어의 또 다른 사례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집에서 배우자를 케어 하는 ‘재가요양’이다. 양천구에 사는 이순례(가명·78)씨는 파킨슨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편(82)을 15년째 돌본다. 구로구의 한정자(가명·65)씨는 위암에 허리협착증과 무릎수술로 걷기가 불편한 아내(63)를 5년째 케어 한다.

임순영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처음 시작한 것은 재가요양(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이다. 임금은 시급제로 요양원 종사자의 절반 수준이다. “하루 평균 3시간 일하면 되니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근무 유연성이 좋아 재가요양을 선택했다”고 한다. 수급자

무관한 일을 시키며 ‘갑질’을 하거나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예사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장기요양요원의 호칭을 알리려고 ‘아줌마 No!, 요양보호사입니다’를 새긴 앞치마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임씨는 재가요양 가정을 전전하다가 요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간병 10년에 집 잡히고 빚만 2억
복지부는 2043년이면 요양보호사가 99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으로 지난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요양보호사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시기로 했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쉽지 않고, 노인들은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유입 전망은 어둡다. 간병 노인 100만 시대를 맞아 ‘간병

‘영 케어러’, 규모 파악 안돼
가족이라는 이유로 병든 부모를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져야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는 또 다른 이름의 아픔이다. ‘영 케어러’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부모 등에게 무보수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조부모나 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7만 명 넘는다는 국내 첫 추산 결과가 나왔다. 이 수치를 전국에 확대하면 20만 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20대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이다.

영 케어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영 케어러 상당수는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1.6%가 우울증을 겪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22.1%는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계엄 내란 유죄’ 법리 모순있다

지귀연 판사 ‘영국왕 찰스1세 인용’은 부적절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가라! 그대들은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들은 의회가 아니며, 나는 그대들의 회기를 끝낼 것이다. 저기 있는 변칙이는 의사봉을 치워버리고, 의회문을 걸어 잠가라.”(In the name of God, go! You are no Parliament. I say you are no Parliament; I will put an end to your sitting. Take away that shining bauble there, and lock up the doors.)

켄 휴즈 감독, 리처드 해리스 주연의 1970년 제작 영국 역사영화 ‘크롬웰’ (한국 제목 ‘풍운아 크롬웰’)의 마지막 대목에서 주인공 올리버 크롬웰 (Oliver Cromwell)이 군대를 동원, 의회를 점령하고 해산하면서 한 분노섞인 말이다.

크롬웰이 어떤 인물인가. 하원의원 출신으로 막강한 의회파 군대를 이끌고 왕실과 7년간의 내전을 벌인 사람이다. 전쟁 과정에서 국왕 찰스 1세가 의사당에 군대를 보내 의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를 반역죄로 처형했다. 하지만 국왕이 처형된 후 오히려 군대를 의사당에 보내 아이러니하게도 의회를 점령, 해산하고 ‘나라를 수호한다’라는 의미의 호국경(Lord Protector)이라는 최고 통치권자 자리에 스스로 올라 공포정치를 한 잔인한 독재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공판에서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7세기 의회와 전쟁 끝에 의사당에 군대를 보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법원에서 ‘반역죄(대역죄)’가 인정돼 도끼로 목질려 처형된 찰스 1세 사례를 인용했다. 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와는 달리 12·3계엄이 ‘친위쿠데타’라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군대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의회를 존



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 판사의 이런 주장은 1%의 사실로서 99%를 말하지 않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버드대 서양사 박사 출신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의 한 언론 칼럼에서 “지 판사가 판결문에 느닷없이 1600년대 영국 왕 찰스 1세를 소환해 자신의 판결을 정당화하려

려져 크롬웰 주도로 처형됐다. 당시 크롬웰이 이끌었던 의회파의 ‘철기군(Ironsides)’은 최고의 엘리트 부대였다. 그가 무명의 하원의원에서 잉글랜드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바로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철기군이였다. 철저한 능력중심주의(Meritocracy), 엄격한 군기(Strict Discipline), 하나님(하느님)의 군대(Godly Army)이자 하나님의 도구

적인 ‘교수형, 부관참시, 장기적출 및 사지절단형(Hanged, posthumous execution, Drawn and Quartered)’이였다.

왕정복고 이후 찰스 2세는 1660년 제정된 대사면법인 ‘망각법(Act of Oblivion)’을 통해 대부분의 범죄자를 사면하려 했으나, 부친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판사 59명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어 철저히 응징했다.

왕정복고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즉위한 찰스 2세는 아버지가 처형된 지 12주년이 되는 1661년 1월 30일 크롬웰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끄집어 내 부관참시했다. 크롬웰의 살점 등 몸은 교수대 근처 들판 타이번(Tyburn)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머리는 장대에 꽂혀 의회가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밖의 기둥에 전시됐다. 시체는 매장 당시 소금에 잘 절였기 때문에 그냥은 잘 잘리지 않아 도끼로 30번을 내리쳤다고 한다. 크롬웰의 머리는 1685년 찰스 2세가 사망할 때까지 24년간 그 자리에 걸려 있어야 했다.

찰스1세 처형 주도 크롬웰, 의회 해산 시켜

했다. 이는 17세기 절대군주와 의회의 관계를 21세기 자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기계적으로 등치(等値)시킨 우수판스러운 궤변에 불과하다. 지 판사는 국왕이 군대로 의회를 공격했기에 국가수반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완성하기 위한 사례로 거론한 것 같은 데 이런 비유라면 윤 전 대통령 내란몰이를 한 사람들은 왕정복고(Restoration) 후 역시 반역죄로 부관참시(剖棺斬屍) 처벌을 받은 크롬웰같은 자들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당시 영국 왕당파(Royalists)와 의회파(Roundheads)의 갈등, 즉 양자간의 전쟁은 반란 성격을 갖는 내란(insurrection/rebellion/treason)이 아닌 권력투쟁 양상의 내전(civil war/internal war)이다. 국왕과 의회는 세금징수 문제 등 사사건건 대립 끝에 양측 모두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했다. 큰 전쟁은 두 번이었는데 1, 2차 내전 모두 찰스 1세 군대가 패했다. 패전한 찰스 1세는 1649년 체포된 후 법원의 반역죄 사형선고가 내

(Instrument of God)라는 모토 아래 편성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이 부대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과 크롬웰만을 믿었다.

지 판사는 훗날 왕정복고로 아들 ‘찰스 2세’가 국왕에 즉위하자 전왕(前王) ‘찰스 1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들이 반역죄로 몰려 사형집행되거나 부관참시된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왕이 없어지자 호국경직위에 스스로 올라 잉글랜드는 물론 스코틀랜드·아일랜드까지 통치하면서 역대 국왕들보다 더 참혹한 공포정치로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던 크롬웰은 부관참시되고 목이 잘렸다.

1649년 찰스 1세의 ‘사형 선고 판결문(Death Warrant)’에 서명해 ‘국왕 살해범(Regicides)’으로 분류된 판사는 총 59명이다. 재판에 관여한 검사, 법정 경위, 사형을 선포한 목사 등 21명을 포함하면 총 80 명이 ‘살생부’에 올랐다.

이 판사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중세 이래 가장 잔인한 반역죄 처벌 방

크롬웰의 머리는 1960년이 돼서야 그의 모교였던 케임브리지대 시드니 서식스 칼리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안장 위치는 도난이나 훼손 우려 때문에 공개돼 있지 않다.

어찌됐든 크롬웰이 찰스 1세에 대해 벌인 전쟁은 청교도혁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국이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영국 의회 앞에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롬웰의 흉상이 서 있다. 반면 절대왕정을 입헌군주제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또 다른 당사자인 찰스 1세 동상은 런던 변화기인 트라팔가 광장에 우뚝서 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지만, 복수는 패자의 피로 완성된다”(History is written by the victors, but revenge is completed with the blood of the vanquished.)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에 보복의 비극성이 결합된 격언이 아닌가 보인다.☞

한국사회 잠식해 들어오는 중국, 중국인

2016년 인민일보 서울지사 설립 ... 인터넷 한국어 신문도 발행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지난 3월 3일 한겨레 신문에 누락 없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사가 전면 광고로 실려 우리 국민을 놀라게 했다. 신문 1개면 한국어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단 구석에만 인민일보라고 써어있어 한겨레 본문 기사로 착각하게 했다.

중국 정치를 선전하는 인민일보는 이미 2016년 비밀리에 서울에 지사를 두었다. 그들은 체제 선전을 위해 여러 외국어로 발행 중이며 인터넷으로 한국어 신문도 발행한다. 또 전 세계에 1700개,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 공자아카데미, 중·고등학교에는 24개 공자학원, 초등학교에 9개 공자학당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일부에서는 정치선전과 간첩 활동만 한다고 오래 전에 폐쇄했다. 지난해 10월에 서지역 국회의원은 당초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겠다던 목적과 달리 부드러운 말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는 스파이 기관이라고 의심했다.

작년 10월19일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는 100여명의 중국인이 중국 군복 차림으로 행진했다. 시민들이 놀랐는데 사실은 '한·중교류경기대회'라고 했다.

며칠 후 31일에는 경기도 여주시가 주관한 '여주 오곡나루 축제'에서 한·중 문화 교류 경연대회 프로그가 있었는데 중국 예술단은 여의도 걷기 행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인민해방군 차림으로 깃발을 들고 있었다. 이 두 행사는 예술성이 안 보이고 정치색이 짙어서 많은 주민이 씩씩해 했다.

2022년 서울 문정동에서 개업하고 현재 일산에도 분점이 있는 중국인 직영 M식당은 맛집으로 유명한데 "중국 비밀경찰이 운영한다. 간첩 본거지다."라는 미확인 소문이 있다. 오래전부터 국정원이 간첩 색출 업무를 중단해 아쉽지만 이 소문은 확인 불가다.



지난 해 10월 19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국인 100여명이 인민군복 차림에 중국 국기를 들고 한·중 교류 경기 대회를 벌이고 있다.

열을 낼까. 중국은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넓은 국토를 가졌지만 국민 개개인은 땅을 가질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다. 개인은 건물은 가질 수 있지만 땅은 가질 수 없다. 우리나라 사업가가 중국 땅을 임대해서 건물을 짓고 중국인 근로자의 싼 인건비 등으로 좋아하며 사업을 하다가, 철수할 경우 쓸쓸히 빈손으로 퇴진한다. 중국은 자본주의로 약간 들어섰지만 사유재산은 허락 안하는 공산주의국가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재산은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게 그들에게 큰 매력 아닐 수 없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얻는 이익은 부동산 이득뿐 만이 아니다. 올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건강보험 혜택,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

중국인 소유 땅 면적 '여의도의 갑절' 한국 영주권 소유 중국인 12만명 넘어

이 외에 오래전부터 중국인은 우리나라 곳곳의 땅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2배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인 15만 명인데 그 중 81%가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외국인에게 주는 특혜를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취득해 부를 쌓고 있다. 주로 노른 자위 땅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그들은 많은 아파트를 갭투자로 소유하고 있다. 2025년 6월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58,896채였다. 총 외국인 소유 중 70%다. 우리 헌법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취득세와 보유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100%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오래 전에 33세인 중국인이 평창동에 120억 원짜리 집을 은행 대출을 받은 현금만 들고 구입한 기막힌 사례도 있다. 어린 아이가 부동산을 사도 제약이 없다. 자금 출처조사도 물론 없다. 몇 년 전에 중국인 61명이 아파트 50채를 구입해서 국세청이 처음 조사를 한 일

이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3년 이상 거주만하면 내 돈 한 푼 없어도 은행에서 빌린 돈 100%로 강남에 아파트 몇 채를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집 없는 한국인은 최근 조치로 제도적으로 대출이 막혀서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 뿐인가. 2019년 1월, 중국 정부가 직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부근,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 11개 필지를 299억 2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 중 2필지는 우리 정부 소유였다. 한 나라의 정부가 남의 나라 심장부의 땅을 세금 한 푼 안내고 사서 소유해도 되는지 의문이지만 아쉽게도 법적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

제주도에도 그들의 땅이 많아 전체 제주도 면적의 1.5%, 여의도 면적 2배인 941만㎡가 중국인 소유이고, 2024년부터 제주 최대의 관광단지인 휴양단지가 중국인에 의해 조성됐다. 충북 진천 등 산업단지에도 중국인 소유 대지가 늘고 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한국 땅 매입에

실제로 중국인이 몰려사는 안산시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국인이 당선됐다.

중국과 34년 전 수교했지만 공산주의인 중국과 한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인 한·미, 한·일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6·25때 피란 내려온 1천만 이산 가족이 76년간 북한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며 한을 안고 살았다. 125만명 중국 인민군이 6·25 때 북한군을 돕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남북한을 자유로 왕래하며 오손도손 가족끼리 지낼 것이다. 그 뿐인가. 우리나라 영토인 발해가 있던 만주 땅까지 전쟁 후 중국이 차지해버렸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낸 반쪽 국토조차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데 정부는 친중 정책으로 내버려두고 있다. 현 정치인들은 비극의 6·25를 겪지않은 전후 세대들이다. 역사서에는 중국이 유사 이래 우리나라를 1천 번이나 침략했다고 적고 있다. 그걸 모르더라도 이 소중한 땅이 중국 정부와 중국인 손에 넘어가는 건 안타깝다. 그 책임은 정부나 국민이나 방관한 모두에게 있다.☞

분노한 중도 '6·3지방선거' 선택은?

유권자, 고정성 낮고 이동성 높아 ... 이념적 중도와 달라



송용재
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전 연세대학교 강사

분노한 중도, 차악의 선택

선거가 다가오면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중도'다. 정치권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를 이야기하고 중도를 향해 손을 내민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중도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에서 말하는 중도는 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이념적 중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특정 이념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기보다 현실적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유권자 집단에 가깝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 진보든 보수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지지를 거둔다. 정치적 소속감보다 실용적 가치와 현실적 판단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중도는 고정성이 낮고 이동성이 높은 유권자 층이다. 중도는 특정 정당에 장기적으로 묶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집권하기에는 매우 힘든 현실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른바 '중도 정당'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중도는 탈이념적 성향이 강하다. 정치적 열정이 강한 이념 지지층과는 달리 정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평소에는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러나 정치적 불만과 분노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동안 조용하던 중도는 갑자기 움직인다. 그리고 그 순간 선거의 판세는 크게 흔들린다. 이 때문에 중도는 한국 선거에서 종종 '결정적 순간에 등장하는 유권자'로 불린다. 중도의 선거 판단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정치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때 중도는 '최선과 차선의 경쟁' 속에서 투표한다. 누가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2022년 6월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두산동 제2투표소 투표현장.

는지, 누가 더 능력 있는지, 누가 더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비교하며 선택한다. 그러나 정치가 역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중도의 선택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때 중도는 더 이상 최선을 찾지 않는다. 최악을 제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차기 대권 구도를 둘러싼 정략적 전초전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는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

4년전과 어떻게 달라질까?

결국 이번 선거에서 중도의 판단 기준은 분명해질 것이다. 누가 더 지방선거의 본질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가. 누가 더 권력 암투에 몰두하고 있는가. 중도는 이러한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도 유권자는 소모적인 이념 갈등에 대해 본능에 가까운 거부감을 보인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민생과 국가 경쟁력은 그만큼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념과 진영대립이 정치 전반을 지배하면서 생산적 논의와 미래 비전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협력과 조정으로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당리당락에 활용하는 모습은 국민적 피로감을 넘어 분노를 키우고 있다.

특히 중도층에게 이러한 정치 행태는 단순한 실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적 무능'이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책임

지방 일꾼 선출보다 차기권력 재편 무대 갈등 정치·분열 방치한 책임 준엄한 심판

거한다. 즉 최악을 배제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른바 '차악의 선택'이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후보와 정당 가운데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사라질 때, 중도는 가장 나쁜 선택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때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응징의 장으로 바뀐다.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정권 심판 선거 역시 이러한 중도 심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분노한 중도는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는다.

분노한 중도는 응징하고 벌을 주기 위해 투표한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종종 정치권의 예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역시 이러한 중도 심리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다.

결 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세력 다툼으로 선거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지방선거를 차기 권력 재편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지방선거의 본래의 의미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뒤로 밀려나 실종상태에 가깝다. 지방행정과 지역정책은 관심의 중심에서 아예 사라졌고, 대신 중앙정치의 권력 다툼이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선거로 크게 왜곡되고 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치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치가 지방선거를 권력 투쟁의 무대로 변질시킬수록 중도 유권자의 피로감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회피'로 인식된다. 중도는 극단의 언어가 아니라 상식의 언어를 원한다.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를 요구한다.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진영 결집과 지지층 동원에만 몰두한다면, 중도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심판이나 세력 경쟁이 아니다.

갈등을 먹고 사는 정치에 대한 경고이며, 분열을 방치한 책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다. 중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사회 통합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저버린 세력에 대해, 투표로써 확실한 응징을 하고자 할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와 어떻게 다를지 자못 궁금해진다. ☞

“AI 알고리즘이 전쟁을 지배한다”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美-이란 戰 새 양상



류종현
본지 편집위원,
걸프전 종군기자,
전 MBC워싱턴특파원

현대전은 보이지 않는 목표물까지 AI 기반 타격 체계로 자동 탐지하여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하는 위성·사이버전으로 양상이 전환되고 있다. 과거 1991년 겨울 걸프전에서 “정밀유도무기 시대의 개막”을 열었다면 이번 대 이란 전 ‘장대한 분노작전 (Operation Epic Pury)’에서 확인한 전쟁양상의 큰 변화가 감지된다. 이란 수뇌부 회의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등 ‘정보·속도·연결성’에서 치명적 승패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스 전투기(F-117)로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원거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함



사막의 전장으로 병력을 수송하는 C-130 내부에 탑승한 미군들. 필자도 걸프전 전장에 도착할 때 적군의 미사일공격을 피해 저공비행으로 야밤에 이런 수송기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상황에 따라 낙하산으로 전장에 도착할 경우를 대비해 병력은 모두 낙하장비를 착용한다.

우리의 선택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평화의 착시’다. 병력 증강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협상이라는 언어 뒤에서 특수부대 파병 등 군사 옵션을 키우는 전략, 그것이 지금 미국이 선택한 방식이라면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정보·감시·해상안보 협력에는 적극 참여하되, 이란 본토 공격과 같은 확전의 한복판에 가담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적 강경성보다 실질적 해상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 외교장관이 이란 측에 직접 선박 안전 보장을 요청한 것은 방향 자체는 맞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미국·걸프 국가들·일본·유럽과 공조하되, 그 목표를 선박과 유조선의 항행 자유 확보에 분명히

한미동맹 틀서 해상안보 협력 적극 참여해야 항로의 안전 지키는 실용적 균형외교 필요 중동의 포성이 멈추어야 시민경제 희생



으로써 과거 전쟁이 “보이는 목표물 정확히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전은 “보이지 않는 목표인 지하의 지휘부, 레이더, 통신시설까지 타격”하여 제거 하는 네트워크·AI·무인전의 시대, 곧 ‘지능화된 전쟁(Intelligent Warfare)’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총알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이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유예된 건 폭격일 뿐, 우리 선택이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 경제의 ‘숨구멍’이다. 이 좁은 바다가 막히는 순간, 원유와 LNG 수급이 흔들리고 환율과 물가가 요동친다. 산업은 비용의 파고에 휩쓸리고, 민생은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의 포성이 곧 이 땅의 서민경제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이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은 분명하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안정. 둘째,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 셋째, 동맹을 유지하되 전쟁의 당사자로 휘말리지 않는 외교적 균형이다. 우리의 전략 역시 명료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정보·감시·해상안보 협력에는 적극 참여하되, 이란 본토 공격과 같은 확전의 한복판에서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체제 전환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 즉 생존의 통로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냉정한 실천이다. 파병을 해야 한다면 부대의 임무를 한국 선박 보호 중심으로 정비하고, 전략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있을 뿐”이라는 영국의 외교가 파머스턴 경의 말처럼, 지금 우리를 붙들여 매주어야 할 기준은 단 하나, 국익이다.

맞춰져서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외교적으로도 명분이 서고, 군사적으로도 불필요한 확전을 피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의 먼 바다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맥이다. 이곳의 불안은 곧바로 유가로 이어지고, 유가는 물가를 자극하며, 그 충격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한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대한민국은 안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기여 없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호르무즈 공동성명 참여’와 우리 상선 유조선의 통행을 보호하는 ‘해군 함정 파견’ 문제에 대해 논쟁은 길었고, 결론은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 ☐

美-이란戰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했다

주한미군 사드 중동 이동...대북 방공망 '큰 구멍'



이도선
본지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이란전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한 미군의 패트리엇(PAC-3)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대거 중동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대북 방공망에 큰 구멍이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발발 10일 만인 지난달 10일 “주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쟁이 확대되면 지상 무기와 전투부대 차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전격 타격으로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에 돌입했다. 핵 협상 결렬에 따른 ‘예방 전쟁’을 명분으로 내건 이 작전에는 이스라엘도 함께 했다. 전쟁 첫날부터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란은 ‘피의 보복’을 다짐하며 결사항전에 나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군사 시설 공격과 함께 표적 공습으로 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제거했고,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등 주변국들 폭격에 이어 4000km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하며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등 전쟁은 확산일로다.

중동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자 원유 가격이 재앙적으로 폭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우리나라도 휘발유값이 뛰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동하고, UAE와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도입에 합의하는 등 이리저리 애쓰지만 국면은 녹록지 않다. 원유 비축물량이 두 달 치도 안 남아 전



국군의 날인 지난해 10월 1일 우리 군의 다연장포 천무(사진왼쪽)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지나고 있다. 천무는 130밀리와 230밀리 로켓포를 발사할 수 있다. 최대사거리는 80km, 축구장 3배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민생에 깊은 주름살이 생길게 뻔하다. 벌써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품절되는 등 ‘비닐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걱정해야 할 게 경제만이 아니다. 안보는 생존 문제다. 미군 사드와 패트리엇의 중동 반출은 곧 대북 미사

래식 전투역량, 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란 논리에서다. 하지만 북핵은 ‘특별한 요소’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슬쩍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킬체인(선제타격)에 필수불가결한 위성 정보도 거의 미군에 의존한다. 북한이 지난 달 14일 한미연합연습(9~19일)에 맞춰 600mm 방사포 10여 발을 동해로 쏘

동참하는 등 심한 눈치작전이 보기에 민망하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사드 철수를 주장했고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양안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그저 ‘세세(謝謝, 고맙습니다)’ 하면 된다”고 했었다. 그의 이런 전력에 비춰 미군 방공 무기 반출을 반대했다는 것도 썩 미덥지 않다. 행여 반미주

미국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응책 시급

북한 핵 대응 반출된 방공 무기복귀 전념해야

일 방공망 붕괴를 의미한다. 북한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후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하층으로 구분해 하층은 패트리엇이, 상층은 사드가 각각 요격한다. 하층 방어에 집중하는 한국군은 요격률이 낮은 구형 패트리엇이 주력이고, 천궁-Ⅱ는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패트리엇의 절반이다. 빠져나간 주한 미군 자산의 대체 전력이 당장은 없는 셈이다. 국산 천궁-Ⅱ가 UAE에서 96%의 요격률을 자랑했다지만 그것만으론 어렵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고작 40km로 광활한 중동과는 사정이 판판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미군 방공 무기 반출로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되고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되는 등 재

는 등 신무기를 과시하며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반면 우리 군인들은 총 대신 삼단봉 들고 최전방을 지키는 상황에서 ‘세계 5위 군사력’ 운운은 물정 모르는 철부지 소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막후 협상을 거론하는 한편으로 캘리포니아와 오키나와 등지의 미군을 중동으로 보내며 지상군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칫하면 주한 미군의 방공 무기에 이어 지상 무기와 병력도 차출될 판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차출된 주한 미군 전투부대는 끝내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뚫기위한 군함 파견을 압박 중이다. “공식적 파병 요청이 없었다”던 정부는 뒤늦게 “미국 등과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본 등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도 나중에는

의자들의 망국적 선동에 넘어가 사드 복귀를 막는 우를 범해선 절대 안 된다. 반출된 미군 자산이 종전 후 반드시 복귀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전략 자산 재배치는 미군의 강점”이라고 내세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전략적 유연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라 주한 미군 전력 반출은 앞으로도 세계정세에 따라 재연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적용되므로 우리 안보에 더없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참에 한·미 양국의 혈맹을 분명히 재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코스피 6000시대 ..예탁금 증시로 대거 이동

경제 포커스 **중동 사태-‘빚투’ 문제 등 증시 화약고**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조호황)이 계속되면서 주식 시장이 화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 노력에 화답하듯 코스피 6000P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자금이 빠르게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른바 ‘증시로의 머니 무브’다. 너도 나도 예·적금 깨고 주식계좌 텃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 자금을 건전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란 자화자찬 성 평가까지 정부·여당 쪽에서 나온다. 지난해 코스피 수익률은 75%로 단연 세계 1위다.

‘불장’(Bull Market)에 ‘포모’(FOMO) 증후군 만연

코스피 6000P는 한국 증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 첫 6000P를 돌파한 지난 2월25일은 한국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상승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체력이 한 단계 상승되었음을 상징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요즘의 ‘불장’(Bull Market)에 미쳐 뛰어들이지 못한 일부 예비 투자자들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하는 ‘포모’(FOMO)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상승이 과거와 다른 것은 단순한 유행성 장세가 아니라 반도체와 AI산업의 실질적 이익 성장이 뒷받침 되었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 직전 2000P 중반 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정권이 바뀌면서 치솟기 시작, 5000선 돌파 후 단 한 달 만에 1000P가 오른 초고속 성장세는 한국 증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해준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 현상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전이되며,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요즘 주식시장 상황을 ‘풍당풍당’ 또는 ‘롤러코스



한국거래소(KRX)에서 코스피 6000P 돌파를 자축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제공>

터’ 장세라고 일컫는다.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오죽 했으면 미국의 어느 증권 애널리스트가 “한국 시장은 간이 크지 않고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현기증 장세”라고 꼬집었을까.

불장 명석 깔아준 건 정부여당...1,2,3차 상법개정안으로 ‘작품 완성’

이번 불장의 명석을 깔아준 장본인은 정부·여당이다. ‘코스피 5000’을 공

원 분리 선출 확대 등)과는 달리 3차 개정안은 재계의 우려로 논의가 오래 진행됐다. 자사주가 기업 운영에 있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근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집권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제는 주가가 하락해 주식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을 밑돌게 되면 투자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대매매’에 봉착한다는 점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자의로 투자자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7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가 2200선까지 밀렸던 2023년 10월24일 이후 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증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전한 주식시장 유도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국은 유엔도 인정한 선진국이나,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만큼은 신흥국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한국을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아직 편입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 증시는 지난 1992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34년째 제자리걸음

한국증시 ‘신흥국’ 머물러 ...선진국 지수 편입 과제

약으로 내세운 대통령까지 나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외치고 있거나 정책적 기대감까지 더해져 자금이 속속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간 진짜 부동산 불패신화 대신 ‘주식불패’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상법 개정을 들 수 있다. 지난 2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신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자사주도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는 그간 국내 기업에 있어 경영권 방어와 주요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지난해 7월과 8월에 걸쳐 빠르게 입법과 시행이 이뤄진 1, 2차 상법개정안(이사 총실의 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

주가를 낮추는 악습을 막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기업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 과세 형평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야당과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이미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과세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져 지배구조 약화와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등 경영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용자잔고, 이른바 ‘빚투’ 규모가 30조원을 훌쩍 넘고 있다. 지난 1월 말 30조원을 넘은 후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주식 활동 계좌 수가 1억 개를 넘어서서 국민 1인당 평균 2개꼴이라니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주식 열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문

을 하고 있다. MSCI는 글로벌 증시를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등 3단계로 구분하는데, 한국 증시는 아직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정도로 성숙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 세계 펀드매니저와 기관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참고하여 투자금을 배분하며, 그 규모는 약 2경원에 달한다. 때문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필수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은 경제규모와 시장 안정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한국 증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중동 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롤러코스트 장세 등 증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주린이’(주식 초보 투자자)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투기판이 아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특파원 수첩 런던 ⑫

첩보 영화 밤치는 탈출극 20분만에 끝

신상옥·최은희 오스트리아 빈 脫北 막전 막후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런던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편으로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여장을 풀 겨를도 없이 이곳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신상옥·최은희 부부가 북한을 탈출하여 서방으로 귀환하겠다고 갑자기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출극 취재를 위해 런던에서 이곳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들의 속셈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영화 제작이 자유로운 곳을 찾아 월북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들이 왜 마음을 바꾸어 다시 서방으로 되돌아오려 했을까? 신상옥은 1년여 전 런던에서 나와 만났을 때 북한으로 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일이 있었다. 그가 한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화인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자 중앙정보부(CIA)에서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CIA는 내가 박정희체제를 비판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거절하자 CIA로 불려갔고 신(申)필름의 허가가 취소되었다. 당시에 빚 4억 원을 갚을 길도 막연하던 차에 북한에서 손을 뻗었다.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서 보람있는 영화를 제작하려 했으나 한국정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도록 공작했다. 비자없이 갈 곳은 서독 밖에 없었다. 서독에서는 윤이상의 도움을 받았다. 최은희와 이혼한 것은 여권과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또 남궁원과 김지미를 만난 국제영화제에서도 북한 찬양 일색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배려로 부러울 것 없이 지내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을만큼 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공화국밖에 없다.” 그들은 북한에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1983년에 김정일의 주선으로 재회, 영화 활동을 계속 중이었다.

도착 즉시 미국 대사관으로 찾아갔으나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입장 불허. 어렵사리 존 윌리엄스 대변인과



1986년 신상옥·최은희 북한 탈출을 다룬 기사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리저리 아무리 물어도 노코멘트로 일관. 다만 “조금 있으면 더 발표할 것이 있지 모르겠다.”는 말에 그 뒤로도 나는 진척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대사관을 나온 나는 이 기사를 맨 처음 보도한 교도(共同)통신 빈 사무실과 부부가 투숙했던 호텔에 가보았다. 하스미 기요시 특파

교도통신의 전 빈특파원 에노키 아키라(당시 본사 섭외부장)와 점심 식사를 하자며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곧장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 들어간 것. 호텔 앞에서 그들을 감시하던 북한 경호원들은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사라지는 그들을 뒤쫓으려 했으나 역 부족. 경호원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일

원으로부터 최-신 부부가 미 대사관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사람이 교도통신의 전 빈 특파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요하네스 가(街)의 호텔 인터콘티넨탈 매니저는 손님인 프라 이머시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끈질긴 질문에 최-신이 가명 아닌 실명으로, 어젯밤 하루 트윈 룸에 숙박한 뒤 오늘 낮 남겨 둔 물건없이 체크아웃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취재 소스를 찾아다니는 곳마다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 취재 경쟁은 불꽃을 튀겼다. 취재할 것도, 찾아가볼 곳도 많은 기자에게 빈의 일요일은 너무나 짧았다. 급히 아는대로 서울 본사에 새벽까지 기사를 송고한 나는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또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사건 발생 뒤 1주일 동안 현지에 머물면서 종횡무진 알아본 결과 첩보 영화 밤치는 그들의 탈출극은 단 20분 만에 끝난 단막극이었다. 그들 부부가 증발 8년 만에 자유세계로의 탈출을 위해 빈에 온 것은 3월 12일. 그들은 시내 중심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13일 낮 일본

본 언론인 에노키를 조연으로 출연시킨 셈이다. 하스미특파원은 자기 선임자, 에노키로부터 신-최 부부의 미국 대사관 잠입 성사를 확인하고 부부의 망명사실을 전 세계에 특종 타전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일이 지난 22일 미국무부 찰스 레드먼 대변인은 이들을 현재 ‘미국 안가에서 보호 중’이라고 공식 발표한다.

클림트 ‘키스’에 그린칭에서의 ‘호이리게’ 즐겨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 앞 시민공원(Stadtspark)에 세워진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바이올린 쉼은 황금 조각상’은 관광객이 장사진을 치는 핫플. 여름 밤이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 맞추어 왈츠를 추는 선남선녀들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 전설적 음악가가 잠들어있는 성지, ‘중앙묘지’(Zentralfriedhof)에 표경하고 모차르트의 결혼식, 비발디의 장례식이 거행된 슈테판 대성당과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를 감상한 뒤 그날 저

녁 그린칭(Grinzing)에서 ‘빈 숲속의 이야기’ 속에 호이리게(Heuriger:올해 수확한 햇 포도주)를 즐긴 것은 눈코 뜰새 없이 동분서주한 나 스스로에 대한 위로였다.

은둔 생활 3년 후 할리우드에 도전, 왕성한 제작활동

미국 정착 초기 그들은 버지니아주 레스턴(Reston) 안가에서 CIA의 철저한 보호아래 3년을 보냈다. 북한의 보복이나 재 납치의 위협이 높았기 때문에 외출 때마다 경호원들이 항상 동행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열정은 그들을 이런 은둔생활에 안주하게 하지 않았다.

1989년 LA로 이주한 그는 사이먼 신(Simon Sheen)이름으로 왕성하게 영화를 제작, 할리우드에 도전한다. 가족용 액션 코미디 ‘닌자 키드(Ninjas)’시리즈가 대 히트. 박스 오피

탈북 9일 뒤 美 국무부 ‘안가 보호중’ 발표

스 상위를 달리며 상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다. 그 뒤에 제작한 것이 KAL기 폭파사건 주범 김현희를 소재로 한 ‘마유미’. 이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미스터리, 그래서 정치적 금기 사건이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실종 사건을 모티브로 한 ‘증발’(The Vanished)을 제작, 장안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대의 명배우 김희라가 성형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 온갖 호사를 누리다가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자 미국으로 도주,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파리에서 납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과정을 그렸다.

이들 부부는 김일성-김정일의 일상적인 대화를 녹음, 희귀한 육성 테이프를 제공한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았다. 동아일보 김일수 전 홍콩특파원의 대필로 낸 납북수기 ‘김정일 왕국’에서는 북한을 ‘마적 떼들의 소굴’이라고 묘사했다. 미국생활을 마치고 2000년 귀국한 이들은 안양에 申필름예술센터를 설립, 후학 양성에 힘쓰다 申은 2006년 향년 80세로, 崔는 2018년 92세로 각각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강한 기업의 국가만이 경제-안보 유지”

대한연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⑨



최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아래의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국별 순위의 추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각축 속에 기존의 G-7 국가들이 모두 정체상태에 있으며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지난 30여 년간 전혀 추세 상승이 없이 정체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 이후 미·중 간 기업전쟁의 치열함이 돋보이는데, 지난 30여년 간 중국의 급속한 추세상승과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추세하락이 크게 대비된다. 간단한 자료이지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에 안절부절못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일본도, 유럽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전방위 경제·무역·안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기업의 나라만이 경제도, 안보도 모두 지켜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본주의 기업부국 패러다임이 당시 한국이 처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함에 있어 얼마나 실사구시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정희의 정부와 정치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경제적 차별화를 해야 국민이 일어선다.

1. 정부(정치)의 경제발전 기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경제적 차별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나라도 도울 수가 없다”는 이 몇마디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이 녹아 있다. 앞에서 언급한 1964년 2월 26일 서울대 졸업식 치사 또한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 졸업생들이 가난한 나라의 경제 재건에 자조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국가가 국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중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민을 일으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그러하듯 정부도, 정치도 자조하여 일어서는 사람 앞장세워 모든 사람이 따라 일어서도

록 하는 수밖에 없음을 믿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위 정치적 공감을 내세운 빈말보다 인기를 고려치 않고 국민에게 정부는 성과 있는 개인과 새마을과 기업을 우대한다는 원칙을 설파하고, 행동을 요구하고 실제 정책적 실천을 통해 성과를 입증



1978년 3월30일 호남선 철도복선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왼쪽 세번째)

해 보았다.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의 경제발전 역할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항상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은 국민의 부자되기 경쟁을 유도하여 너도나도 그늘진 곳에서 벗어나 양지를 향해 일어서는 역동적인 시대를 열었다.

이다. 결과의 평등은 원천적으로 시장의 차별화 기능과 상충된다.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실패가 바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 시장을 질식시킨 결과이다.

한편 최근 들어 기회의 평등이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던 사회주의 이념가들이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전략을 바꿔, 마치 기회 평등은 시장기능과

경제적 차별화 정책으로 ‘부자되기’ 경쟁 유도 ‘기회 평등’ 앞세운 민주국가들 경제적 곤란 겪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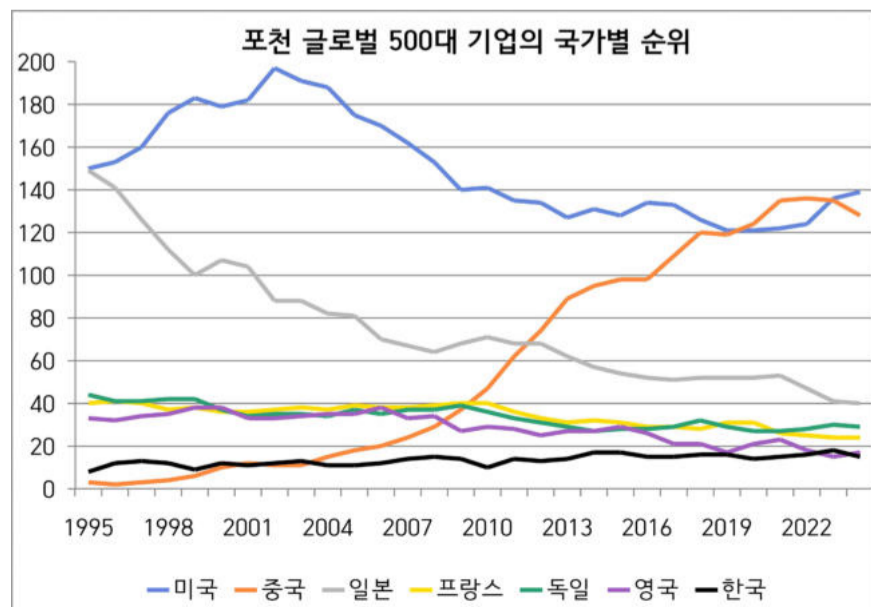
2. 민주주의의 평등과 시장의 차별화 기능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항상 평등을 추구하지만, 시장경제는 차별화로 동기를 부여한다. 민주주의가 정치적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항상 평등은 경제영역으로 변진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 평등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가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경제적 본분인 경제적 차별화 정책에 역행하면 앞에서 보여준 연구 결과가 입증하듯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도 경제 저성장과 분배악화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항상 어떠한 평등의 개념이 시장기능에 맞고 정부의 경제발전 기능과도 부합할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의 개념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결과의 평등, 둘째는 기회의 평등, 셋째는 법 앞의 기회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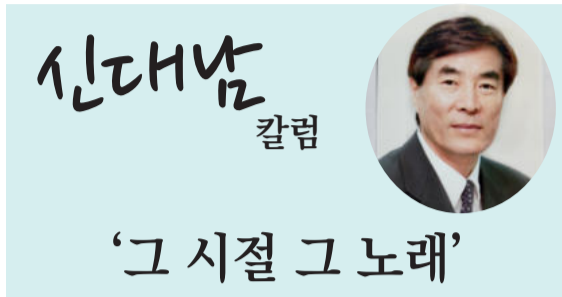
상충되지 않는 것처럼 선전하며 방향을 튼 셈이다. 그래서 요즘은 기회라는 것이 공공재처럼 정부가 나눠줄 수 있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기회야말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적 시장 재화이기 때문에 기회 평등 역시 시장의 기능에 역행한다. 시장과정 자체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회를 그냥 평등하게 나눌 수 있다면 결과 또한 같아진다.

오늘날 기회 평등을 내건 민주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민주사회가 경제발전 역행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평등은 법 앞의 기회 평등이며 이것만이 경제적 차별화와 경제발전과 상충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포퓰리즘 혹은 사회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역행한다. 결과나 기회가 문자 그대로 평등한 경제는 국민의 태업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인생의 완성은 아름답게 사는 것”

1984년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은 사회적 메시지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13〉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내 얘기 같은 노래가 있다. 1984년에 발표한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이 그랬다. 42년이 흐른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 하나 완성한 것 없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노래다. 시적인 가사, 서정적인 멜로디, 잔잔한 보컬, 해맑은 메시지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레코드 판매는 물론, 방송의 인기 가요로 끊임없이 흘러나와 한 시대를 유행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이 사람이 우리 모두 타향인 걸/ 외로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사회에 공헌한 아름다운 노래로 김수환 추기경이 수여하는 ‘가톨릭 가요대상’을 수상하고, 연간 방송 횟수 1위에 주는 ‘PCI 방송 인기가요 대상’의 대상과 작사 대상을 받았다.

삶이 그렇듯이 한 곡의 노래도 히트를 하고 상을 받기까지는 나름의 시련이 있다. 그 시절 박정희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면 된다”였던 반면, 전두환의 신군부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였다. 방송국에도 신군부의 조정관이 상주하고 매사에 관여했다. 연말, KBS의 가요대상 심사에서 ‘인생은 미완성’이 가수상과 작사가상으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조정관이 이런 노래에 상을 주면 안 된다고 테클을 걸었다.

“인생이 왜 미완성이냐? 완성하면 되지. 편지도 노래도 그림도 그냥 쓰고 부르고 그리면 되지 왜 쓰다가 말고 부르다 말고 그리다 말고냐. 이런, 하다가 마는 노래에 상을 주면 안 된다고 심사를 다시 하자고 했다. 심사위원이었던 한 시인이 “인생은 미완성”만큼 아름다운 노래와 가사가 없다. 노래를 문화적으로 봐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일어서버려 상을 받았다.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 걸/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은 시대와 변함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삶의 메시지다.

필자가 이 난의 글을 쓴 것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다. 장석영 대한연론인회 회장님께서



가수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는 것을 노래했다”고 했다.



작사가 김지평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김지평을 기리는 노래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부터 쓰자고 하셨으나 1년 뒤에야, 너무 결례를 하는 것 같아 부족한 글을 쓰면서 대한연론인회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문화탐방 등에서 회우들을 접하고 새로운 세계를 느끼고 배웠다. 1년을 쓰고 “나는 허송세월로 바쁘다”는 김훈 작가의 산문처럼, ‘나’도 허송세월이 필요하고 해서 지난해까지만 쓰려고 했으나, 장석영 회장님께서 “3개월만 쉬자”고 해서 다시 쓰게 됐다.

기를 기원합니다.” 가슴이 멎었다. “남사장님! 빈지 오래되어 그림습니다. 오회장님도 그렇고요. 오는 봄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신대남 올림.” 남선현 사장님과 TV조선 대표이사 사장이셨고 전 문체부 차관을 역임하신 오지철 차관님은 필자가 성수동의 한 엔터회사 대표로 있을 때도 먼 곳까지 찾아주신 따뜻한 존경받는 분들이다.

그리고 박종서 사무총장님, 정재필 부회장님, 최

해 맑은 메시지로 ‘가톨릭 가요대상’ 수상

지난해 12월호가 나가고 한국일보 전성기를 이끈 사장이셨고 한국 언론진흥재단이사장을 역임한 이성준 이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무슨 일로 쉬느냐고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통화였다. 필자가 매일경제신문에 글을 쓸 때도 많은 한국일보 사우들 앞에서 서슴없이 격려를 주셨던 배려와 포용력의 훌륭한 리더이시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신세영의 ‘전선야곡’이 처음 나가고서의 얘기다. 남선현 전 KBS미디어 사장님께서 시보다 더 시 같은 글을 보내셨다. 놀랐다. “... 언론회보에서 방금 회장님의 ‘전선야곡’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에 얽힌 뒷얘기도 흥미롭게 봤고 졸부의 길이 아닌 대장부의 길을 가라는 클로징 멘트가 유난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남선현 dream”. 과분한 격려에 졸필이 더욱 부끄러웠다.

그런데, 지난해 12월호를 보시고 또 글을 주셨다. “... 늘 재밌게 보던 그 시절 그 노래. 기차역은 추억의 정거장도 잘 봤습니다만... 필자 사정으로 석달간 연재를 쓴다고 〈알림〉되어 있네요. 매우 아쉽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바쁜 일로 몇 달 쉬시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혹 건강상 이유로 브레이크 기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남선현 드림.

** 내년 따뜻한 봄날 오지철 사장님과 시간 맞춰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뵈 때까지 내내 건투하시

명우 위원장님, 송창기 국장님, 한양인 국장님 등 회우분들께서도 관심과 격려를 주셨다. 우리들의 공간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끼리의 글을 쓰는 것도 타향의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서로 기대고 사는 풍경이 아닌가 싶다. 가수 이진관은 1960년 전북 군산에서 나서 한양대 철학과를 나왔다. 1980년 TBC방송의 ‘젊은이의 가요제’ 입상으로 데뷔했다. ‘바람소리’ ‘이별 연습’ ‘파초’ 등 감성적인 발라드곡을 노래한 통기타 가수다. 작사가 김지평은 ‘당신의 마음’ ‘숨어 우는 바람소리’ ‘인생은 미완성’ 등 서정적인 노랫말로 가요계를 순화시켰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이진관과 김지평을 수소문해 40년 만에 통화를 했다. 이진관에게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인생은 완성했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이진관은 “인생은 미완성’은 인생을 완성이나 미완성으로 정의한 노래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완성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메시지다”고 했다. 김지평은 “인생은 아름다운 한 줄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아름답게 사는 것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다”고 했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다. 대한연론인회 선후배 회우님들, 장석영 회장님, 신임 이종세 회장님과 더불어 올해도 우리, 회우 여러분의 봄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지구촌이 들썩

3년 9개월만에 광화문 10만관중 보랏빛 물결



최명우
본지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BTS(방탄소년단)의 웅장한 귀환에 지구촌이 들썩었다. 그들은 위대했다. BTS가 KOREA를 업고 하늘높이 날았고 세계가 감동했다.

BTS가 3년 9개월 간의 공백을 깨고 7명의 완전체로 복귀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공연이 펼쳐진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10만 여명의 팬덤 ‘아미’들은 BTS 상징인 보랏빛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날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돼 세계인들이 무대를 함께했다. 넷플릭스가 아티스트의 단독 공연을 생중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왕의 길에 서다’로 서술된 이들 BTS의 위대한 귀환은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 무대를 펼쳐 세계의 주목을 끌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외신은 BTS가 K-Pop과 전통문화의 결합으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세계에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 공백을 뚫고 완전체로 환원된 그들의 복귀 무대는 예상보다 훨씬 파장이 컸다. 그들이 다시 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 역사가 서려있는 광화문 광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어찌 이리 중요한 곳을 개인공연에 내주었느냐는 비난도 나왔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역사와 정치,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K-POP의 위상을 ‘장르’에서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중심이었던 경복궁과 맞닿아 있고,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축적된 공간, 그런 장소를 콘서트 무대로 선택했다는 것이 쇼와 더불어 특별한 메시지를 날리겠다는 의도가 성공으로 이어진 결과를 가져왔다. 퍼포먼스 중에 아리랑은 물론 선덕여왕 신종을 도입했고 김구선생까지 소환한 것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결과적으로 서울이 곧 무대였고 도시와 음악이 결합한 미래형 퍼포먼스를 선구적으로 보여주면서 팬덤들의 가슴에 애국심까지 일게하는 효과를 낳았다.

물론 도심의 대형쇼에 대해 우려도 컸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위험한 선택은 무모한 도전에서 ‘문화적 전환

그러나 뭉뚱그려도 이번 BTS공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문화콘텐츠의 경제파급력이다.

이를 두고 외신 WSJ는 “BTS가 K-Pop을 넘어 K-Power의 스타터가 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BTS가 광화문에 남긴 것은 분명 음악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 대

당연한 것이다. ‘전 세계 아미가 명동으로’ 몰린 탓이다.

대형 유통가도 ‘아미노믹스’의 수혜를 입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면서 K팝 굿즈와 먹거리 분야가 실적을 견인했다.

BTS 공연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노출되며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인 이번 공연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뿐 아니라 항공, 호텔,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K-팝이 이미 여러 산업을 연결하는 ‘경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 이벤트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관련 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K-콘텐츠의 국가 경쟁력 강화, 새로운 K-Power 창출과 연결된다.

보랏빛 아미의 뒤끝도 아름다웠다. BTS 공연 후 팬덤의 품격을 보여준 감동의 장면은 아미 400명의 자발적 청소 봉사였다. 공연을 즐긴 팬들이

‘살아있는 문화의 현장’ 세계 190개국 생중계 아카데미 ‘케데헌 효과’ 함께 K-파워 펼쳐

점’의 새로운 계기를 탄생시킨 셈이었다.

이번 공연은 주최 측 추산 10만명, 현장 4만 관객으로 간단히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며 사실상 ‘글로벌 이벤트’로 확장된 BTS쇼는 음악의 장르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대한 산업소득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시청자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있는 문화의 현장’으로 인식하면서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순위로 선택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202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과 주제가상을 수상, 2관왕에 오른 ‘케데헌’ K-Pops Demon Hunters가 이미 뜨거운 한류열풍을 몰아오고 있는데 그 ‘케데헌 효과’에 ‘BTS 폭발력’이 겹쳐 세계인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있다.

중문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증거였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글로벌 K-POP의 경제선언이었다. 그들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시작’인 것이다.

BTS의 컴백 무대가 열린 날 광화문 광장 일대 편의점 매출이 폭증했다. 장시간 야외 대기를 견디는 팬들을 대상으로 식사부터 방한용품, 휴대기기 충전까지 책임지는 ‘종합 보급소’ 역할을 수행한 덕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명동의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유통업계가 온통 전례 없는 ‘특수’를 누렸다.

특히 ‘팬덤 소비’가 두드러졌다. 매출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BTS 앨범’이 휩쓸며 음반 매출이 전주 대비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응원봉용 건전지가 평소보다 50배 넘게 팔리며 매출 5위에 올랐다. 공연을 즐기기 위한 간편식과 생수매출이 폭증한 것은

자리를 떠나자 어지러워진 현장을 정리하며 쓰레기를 주워담는 자원봉사대가 출동했다. 이들 자원봉사대는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직됐다고 한다. 오픈 채팅방에 모인 인원이 400명이나 됐다. 별도의 공식 안내없이 팬들 스스로 의기투합해 행동에 나섰다.

이들 외에도 쓰레기봉투와 집게 등을 직접 준비해 온 팬들도 많았다. 이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미국, 프랑스, 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팬들이 함께 청소에 참여하며 글로벌 팬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이웃과 도시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다.

“서울과 공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공연의 감동이 보답의 실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 새출발 스매싱

스포츠 코너

4월7일 Ningbo 아시아개인선수권 출전



최규섭

(사)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새출발이다. 심기일전하고 잃어버린 천하의 한 쪽을 되찾으려는 투혼을 다시 불태운다. 연승 행진 좌절을 오히려 보약으로 삼아 천하 재평정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4·삼성생명)이다.

역시 영원한 절대 강자는 존재할 수 없나보다. 연승 가도를 내달리며 세계 여자 배드민턴계를 지배해 온 안세영의 독주가 ‘2인자의 반란’에 휘말려 멈춰 섰다. 그러나 한때일 뿐이다. 방심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도전자의 각오로 재등정의 여정에 나선다.

지난 3월 8일(현지 시각) 열린 2026 전영 오픈(유틸리타 아레나 버밍엄)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은 줄곧 우승의 희생양으로 삼아 온 왕즈이(王祉怡·26·중국·세계 2위)에게 ‘뚝박의’ 일격(0-2 패)을 당했다. 이로써, 2025 덴마크 오픈(10월)부터 이어져 온 ‘연승맥(脈)’은 36에서 끊겼다. 이 대회 결승전에서, 안세영은 왕즈이를 2-0으로 완파한 바 있다.

예상치 못한 패배였다. 그동안 안세영은 왕즈이에게 그야말로 ‘천적’으로 군림해 왔다. 2021년 3승을 시작으



연승 가도에 제동이 걸렸던 안세영이 마음을 가다듬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향한 새출발에 나섰다.

‘왕즈이 충격’ 딛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도전

로 올 전영 오픈 직전까지 18승 4패로 안세영은 왕즈이를 절대적으로 압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10연승을 내달렸을 만큼, 왕즈이를 만나면 즐겁고 편안했던 안세영이었다. 올 1월에 열린 두 차례 대회(말레이시아 오픈·인도 오픈) 결승전에서도, 안세영은 모두 왕즈이를 2-0으로 꺾은 바 있다. 오죽했으면, 중국 언론이 ‘공안증(鞏安症: 안세영 공포증)’이라는 신조어로 안세영과 왕즈이의 천적 관계를 표현했을까.

2025시즌, 안세영은 승승장구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승세를 한껏 떨치며 독야청청(獨也靑靑)하듯 홀로 정상을 거닐었다. ‘왕중왕전’인 BWF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 투어 파이널을 비롯해 11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세계 여자 배드민턴계에선, 감히 넘보지 못했던 단일 시즌 단식 최다 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물론, 최초다. 2023시즌에, 10승에 머물러 한 걸음 차로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을 깨끗이 씻어 냈다.

한 시즌 최고 승률 기록도 수립했다. 94.8%(73승 4패)의 경이로운 승률을 올렸다. 역대 남녀 단식에서, 최고 승률(60경기 이상 기준)이다. 획득 상금 면에서도 돋보이는 기록을 작성했다.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한화 약 15억원·2026년 3월 19일 환율 기준) 고지

를 넘어섰다.

2026시즌 막을 올린 말레이시아 오픈과 잇달아 열린 인도 오픈까지 용솨음치던 이 기세는 비로소 세 번째 무대인 전영 오픈에서 꺾였다. 그 걸림돌이 늘 안세영에게 막혀 2인자의 아쉬움만을 곱씹던 왕즈이였다는 사실 앞에서,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스포츠계의 철칙(鐵則)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 전영 오픈 결승 한판이었다.

그러나 안세영은 다시 힘찬 도전과 등정의 여정에 나섰다. 2026 Ningbo

(寧波) 아시아 개인 선수권 대회(4월 7~12일)가 불굴의 투혼을 불사를 첫 격전장이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할 매우 의미 있는 무대가 되리라 보인다. 2024 파리 올림픽, 2023 코펜하겐 세계 선수권 대회, 2022 항저우(杭州) 아시안 게임을 제패한 안세영이 이 대회 정상을 밟는다면 마침내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희원(希願)을 이룬다.

한편, 남자 복식 세계 1위조인 서승재(29·삼성생명)-김원호(27·삼성생명) 듀오는 전영 오픈 2연패를 이뤘다. 한국 선수로선, 1985~1986년 연속 우승한 박주봉-김문수 듀오의 전설을 40년 만에 재현한 2연패다.☞

한국야구 다시 세계무대 강타

월드 베이스볼 17년만에 8강 진출

재도약의 시작이다. 17년 만의 결선 라운드(8강) 진출이다. 오랜 시간 암흑기에 빠졌던 한국 야구에 비로소 서광이 비쳤다. 2026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3월 5~17일·현지시각)에서, 한국이 믿기 힘든 이적(異蹟)을 창출하며 ‘희망가’를 불렀다. 3개 대회(2013→2017→2023)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의 외피를 뚫고 세계 야구의 중심으로 재진입할 힘을 갖춰음을 보여줬다.

타킷으로 정했던 1차 관문(조별리그) 통과 과녁은 적중했다. 더구나 헤쳐 나갈 수 없을 듯 싶었던 ‘경우의 수’에서 벗어난 값진 과실인 8강 진출

이었다. 희망봉이 보이는 순간, ‘류지현호’에서 터져나온 환호는 도쿄돔에 메아리쳤다. 국가 대항전 무대인만큼 감격의 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온 국민은 열광했다.

2006년에 첫 잔을 띄운(濺觴) WBC에서, 한국은 초창기에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제1회 대회 때 3위에 오른 기세를 몰아 제2회(2009년) 대회에선 준우승의 승전고를 울렸다. 그러나 제3회 대회(2013년)부터 도래한 암흑기는 제5회 대회(2023년)까지 오래도록 한국 야구를 뒤덮었다. 3회 연속 1차 관문의 벽을 뚫지 못했다. 부끄럽게도, 세계 야구계로부터 쏟아지는 “우

물 안 개구리”라는 비아냥거림을 감내해야 했다. 2008 베이징(北京) 올림픽에서 쿠바를 꺾고(3-2) 금메달을 쟁취하며 ‘세계 최고’임을 뽐냈던 한국 야구의 자부심은 어느 순간에 자취조차 찾기 힘들어졌다.

2026 WBC는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격전장이었다. 특히, 쓰러질 듯 하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오뎅이 근성’을 뽐내며 밟은 8강고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대회였다.

2026 WBC에서도, 조별리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C조에서, 일본·호주·차이니스 타이베이(臺北)와 맞붙은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마이애미에서 펼쳐진 8강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첫판인 체코전(5일)에서 대승(11-4)하며 기세를 돋우는가 했다. 그

렇지만 일본전(7일·6-8패)과 차이나이즈 타이베이전(8일·4-5패)에서 연거푸 분패하며, 또다시 1라운드 탈락의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마지막 호주전(9일)에서, 한국은 한껏 웃었다. 5점 이상 차 승리와 2실점 이내 승리를 충족해야 이룰 수 있는 8강행 전제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은 대첩(7-2)을 거뒀다. 일본(4승)에 이어 조2위로 8강에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의 2026 WBC 도전은 8강에서 끝났다. 대회 개막 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도미니카의 벽에 막혔다(0-10패).

2026 WBC는 한국엔 환희와 아쉬움의 희비쌍곡선이 빚어진 대회였다. 세계 중심권 재진입과 세계 야구의 높은 벽을 아울러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무게 있게 다가온 무대였다.☞

이순신, 서울남산 기슭 인현동 출생

교과서에 안 나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秘史 ②



김동철

본회 이사
이순신인성리더십포럼 대표

2. 이순신의 고향과 숨겨진 가족사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은 어디 일까요?”

이순신 인성과 리더십 강의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청중들은 대개 ‘충남 아산’, ‘전라도 여수’, ‘해남, 진도’, ‘경상도 통영’, ‘부산, 남해, 고성, 거제’라고 고를 말한다. 이 지명들은 분명 이순신 장군과 관계가 있는 곳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은 1545년 음력 3월 8일(약력 4월 28일) 한양 건천동(지금의 인현동·충무로 명보아트홀 부근)에서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 변씨 사이에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이정은 고대 중국의 다섯 성군 중 하나인 순(舜)임금의 ‘순(舜)’자를 빌려와 순신(舜臣)이라고 이름지었다. ‘순(舜)’자는 ‘뛰어나다’ 또는 ‘무궁화’라는 뜻이다.

아버지 이정은 네 아들의 이름을 삼황오제의 복희(伏羲)씨와 요(堯), 순(舜), 우(禹) 임금에게서 한 글자씩 따왔고, 돌림자는 신하 신(臣)으로 했다. 그래서 장형이 희신(羲臣), 중형이 요신(堯臣), 셋째 순신(舜臣), 넷째가 우신(禹臣)이다. 이순신이 태어난 생가의 위치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사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명보아트홀 부근에 1985년 생가터 표지석이 세워졌다. 그리고 2017년 몇몇 사학자들이 중구 인현동1가 31-2번길의 신도빌딩을 탄신지라고 비정(比定)해서 안내판을 붙여놓았다.

음력 3월 8일은 양력으로 4월 28일이 된다. 봄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목멱산(木覓山 남산의 옛 지명) 아래 필동(뫼골·한옥마을 부근)에는 세살 터울인 동네 형인 서애 류성룡(柳成龍)이 살았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양숙’이었던 원균(元均) 또한 이웃집 형이었다. 이 세 사람은 같이 서당을 다니고 전쟁놀이를 했지만 성장해서는 서로 다른 길을 갔다. 류성룡과 이순신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천년의 의리’ 사이로 발전했지만, 서인의 두호를 받는 원균은 동인 류성룡과 척을 지고 살았다.

이순신의 조부 이백록은 1519년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역적’으로 몰렸다. 이에 따라 아버지 이정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순신은 ‘흙수저’가 되었다. 그러나 원균은 무과 출신으로 병마절도사(종2품)와 수군절도사(정3품) 등 당상관 출신 부친 원준량의 위세로 ‘금수저’가 되었다.

이순신 조부 기묘사화 연루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친가는 건천동(乾川洞 마른내골)에 있다. 청녕공주 저택 뒤로 본방교(本房橋)까지 겨우 서른네 집인데, 이곳에서 국조 이래로 유명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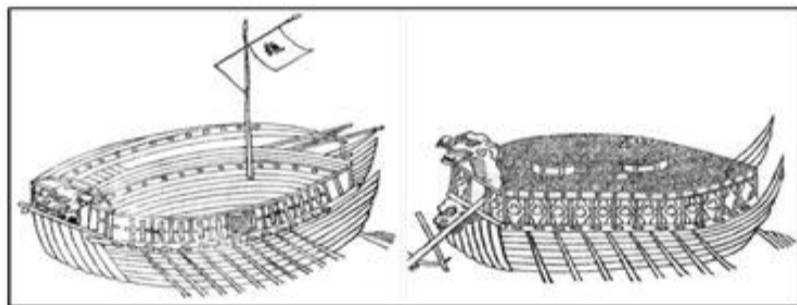
기(亂中日記), ‘임진장초(壬辰狀草), ‘서간첩(書簡帖)’ 등 16세기 동북아 전쟁 기록물(국보 제76호) 가운데 ‘난중일기’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와 함께 ‘한산도가’ 등 27편의 진중음(陣中吟)을 남겨 문학인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1589년 10월 류성룡은 우의정 겸 이조판서(인사 담당)가 되었고, 두 달 후 그의 추천으로 이순신은 정읍 현감(종6품)이 되었다. 과거 급제 후 14년 동안 함경도 변방과 남해안에서 여진족과 왜구 방어에 최선을 다했던 이순신은 현감이 되자 평소 마음의 빛을 갠기로 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두 형 희신과 요신의 아들인 조카들 일이었다. 그는 어머니 초계 변씨와 두 형수 및 조카와 아들, 종 등 모

하기 14개월 전인 1591년 2월 13일 이순신은 정읍현감에서 무려 7단계나 뛰어올라 전라좌도수군절도사(정3품)로 여수 좌수영 본영(진해루)에 부임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행정관할 5관(순천도호부, 흥양현, 광양현, 낙안군, 보성군), 수군진 5포(사도진, 여도진, 녹도진, 발포진, 방담진)의 군사훈련, 군기, 군량, 군선 등 전투준비태세를 엄격한 신상필벌의 자세로 점검했다. 이곳에서 만난 수장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내내 이순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전투에 참여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1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1만 8천여 군사가 부산포에 기습상륙하자 경상좌도수군절도사 박홍(朴泓)과 경상우도수군절도사 원균(元均)은 중과 부적임을 깨닫고 진의 병선(兵船)을 바다에 침몰시키고 총통을 땅에 파묻은 뒤 허겁지겁 출항량을 쳤다. 이른바 청야(淸野) 작전이었다. 원균은 화급하게 전라좌수사인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순신은 조정의 출전 명령을 받은 뒤 5월 4일 본영인 여수 앞바다에서 판옥선(板屋船) 24척, 협



세살 위 ‘명 재상’ 류성룡과 ‘천년의 의리’ ‘임진왜란 양숙’ 원균도 어릴 땐 이웃 형

물이 많이 나왔다. 김중서·정인지·이계동이 같은 때였고, 근세에는 류성룡과 가형인 허봉 및 이순신과 원균이 한 시대이다.”

이순신은 10대 때 어머니 고향인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갔고 스물한 살 되던 해 전 보성군수 방진(方辰)의 무남독녀 외동딸과 결혼하면서 무관 출신 장인의 권유로 무과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 차례 낙방한 뒤 서른두 살에 합격해 여진족 방어의 최일선인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종9품 소대장)으로 임관했다.

난중일기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순신은 어릴 적 서당에서 공부한 사서삼경(四書三經)과 무과 필독서인 무경칠서(武經七書)를 통달한 까닭에 문무겸전한 장수로 알려져 있다. 임진·정유재란 7년 전쟁기록인 ‘난중일

기(亂中日記), ‘임진장초(壬辰狀草), ‘서간첩(書簡帖)’ 등 16세기 동북아 전쟁 기록물(국보 제76호) 가운데 ‘난중일기’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와 함께 ‘한산도가’ 등 27편의 진중음(陣中吟)을 남겨 문학인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순신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차라리 남술의 죄를 지을지언정 이 의지할 데 없는 어린 것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듣는 이들이 의롭게 여겼다.”

다음은 류성룡의 정비록 내용이다. “이순신의 두 형 희신과 요신은 다 그보다 일찍 죽었다. 이순신은 두 형의 어린 자녀들을 자기 친자식같이 어루만져 길렀다. 출가시키고 장가보내는 일도 반드시 조카들이 먼저 하게 해주고 친자녀는 나중에 하게 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

선(挾船) 15척, 포작선(鮑作船 어선) 46척 등 모두 85척을 이끌고 고성 당포 앞바다에 있던 원균의 판옥선 4척, 협선 2척과 합세해 5월 7일 거제도 옥포에서 첫 해전을 벌여 도도 다카도라(藤堂高虎)가 지휘하는 일본 군선(세키부네) 30여 척 가운데 26척을 일시에 분멸시켜 서전(緒戰)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날은 선조의 피란 행렬이 개성을 거쳐 평양성에 입성한 날이다.

이순신 ‘23전 23승’ 기록

풍전등화! 몽진 길에 오른 선조와 호종 대신들은 이순신의 승전보를 전해 듣고는 환호성을 질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국(救國)의 장수를 칭송했다. 그 이후 이순신은 남해안에서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등 23전 23승! 불멸의 기록을 써 내려갔다.☞

일본 '20m 설벽' 뚫고 알펜루트를 걷다

초여름에 해발 2,450m 눈밭서 산악 관광

'에어워커'의 세계 여행 ③

최근 일본 소도시 여행이 유행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데다 자연환경도 뛰어나고 음식도 큰 거부감이 없어 노년들의 해외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알펜루트는 중부 도야마현-나가노현 37km를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넘는 산악관광 코스로 유명하다.

겨우내 폐쇄되었다가 4월중순 개통되는 이 코스는 6월까지 15~20m 높이의 설벽코스, 9~10월 가을철엔 일본 최고의 단풍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나는 2년전 고교 동창 1명과 함께 3박4일 자유여행으로 다녀왔다.

나고야 거쳐 14시간반의 긴여정 끝에 다테야마 도착

4월 17일(수)
오전 7시 숙소를 출발. 14시간의 긴 여정 끝에 다테야마의 시골 숙소인 시로이 기세키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하다.

나고야 중부공항에서 메이테츠 나고야역까지 기차로 이동. 긴 통로를 표지를 따라 갔다. 백화점 3층에 자리한 버스터미널에서 도야마행 고속버스 탑승. 인터넷 예약을 취소하고 한 시간 빠른 3시10분 버스에 탑승. 취소료는 1인 100엔! 도야마까지 3시간 30분 걸리다. 버스 승객은 10여명.

바깥경치는 특별히 게 없다. 아직 꽃도, 연두색 새싹도 보이지 않는다. 봄이 느리게 오는걸까?

도야마역에서 치즈버거로 간단히 저녁식사.

기차타고 깜깜한 밤에 다테야마역 도착. 숙소에서 마중 나온 승합차로 시로이 기세키 게스트 하우스 도착!

허름한 다다미방이지만 씻고나니 지낼만하다.

버스타고 해발 2,450m 눈밭달려 무료 토서 설경감상

4월 18일(목)
오전 9시쯤 알펜루트 시작점인 다테야마역에 도착하니 긴줄이 늘어서 있다. 케이블카 당일 판매분을 사려는 사람들. 떠나기 전날 극적으로 인터넷 예약에 성공한 덕분에 9시40분 출발!

80여명이 만원버스타는 기분으로 10여분 굴속으로 수직상승.

첫 도착지는 비조다이(미녀대평원)에 도착. 아름답리 삼나무숲이 우거진곳!

트레킹 코스가 있지만 패스. 버스타고 무료토까지 설벽감상하며 30여분 달리다. 무료토에서 내려 30여분 눈길을 걸으며 기념촬영. 무료토는 해발2,450m 온통 눈밭이다!

터널 트롤리 버스로 옮겨타고 다이카보에서 하차.

전망대에서 일본 알프스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다시 로프웨이로 구로베다이까지 이동.

다시 5분여 케이블카 타고 구로베코까지 내려가 구로베담에 도착.

걸어서 구로베담을 건너가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

이제 귀갓길. 오던 길을 되짚어 똑같은 교통수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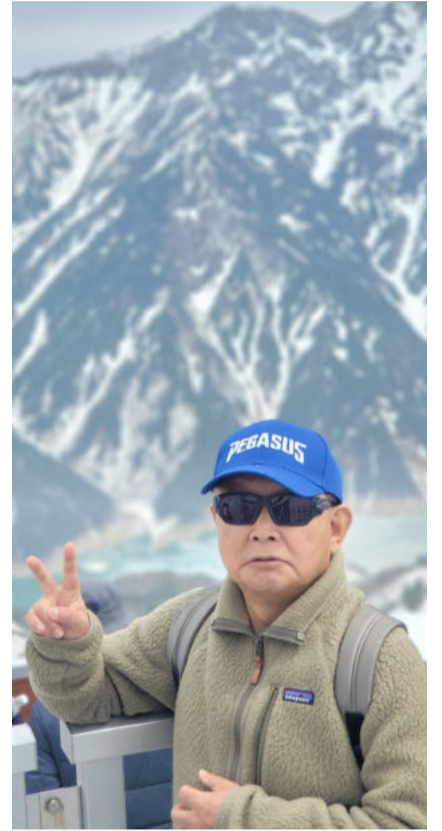
그런데 순조롭던 길이 무료토에서 발목이 잡히다. 마지막 버스가 오후 4시20분! 워낙 사람이 많아 마감시간이 한참 지나도 줄이 줄어들줄 모른다.

한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출발하여 6시 넘어 다테야마역으로 귀환.

숙소 셔틀버스 타고 근처 호텔에서 1000엔 주고 온천욕! 야외온천까지 겸하니 몸이 날아갈 듯!



20m 높이의 설벽옆에 서서 기념촬영.



알펜루트 정상에 선 필자.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바라본 무료토의 설경.

오아시스 21, 아츠다 신궁 등 나고야 시내 관광

4월 19일(금)
새벽 일찍 숙소를 나서 오전 6시16분 기차를 타고 도야마로.

역에서 도시락을 사서 처음 쌀밥을 제대로 먹다.

오전 8시20분 고속버스로 나고야로 돌아오다. 12시께 도착.

예약해둔 메이에키 미나미 호텔을 걸어서 찾아가 짐을 맡기고 근처 식당서 카레라이스로 점심.

나고야의 명물인 오아시스 21을 비롯, 미래탑(나고야tv타워)과 아츠다 신궁, 오스 상점가를 2시간 남짓 둘러보다.

오후 4시 정각, 호텔 체크인하고 2시간여 휴식후 저녁식사하러 외출.

가이세키 정식은 예약이 꼭차서 포기하고 시가지를 배회하다 역근처에서 오무라이스로 해결.

3박4일 일정에 대략 80만원이면 OK

4월 20일(토)
새벽에 일어나 호텔 주변 공원을 산책하고 식당 문열자마자 호텔에서 긴 줄서서 아침식사 (간단한 뷔페식).

오전 8시 40분 셔틀버스로 메이테츠 나고야역까지 가서 나고야 중부공항행 기차 탑승.

공항 파크(제2터미널) 관람하는 등 여유있게 시간 보내.

오후 6시 나고야 ~인천 제주항공 탑승하고 귀국.

대략 비용은 1인당 80만원 정도 들었다.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이 3박 4일에 120만~15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도 절약하고 자유를 누리며 나름대로 즐길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박진환 J & J 미디어 대표·본회 회우>

<3박4일 여행경비>

공항 리무진(왕복)	22,400원
인천~나고야 왕복항공료	279,000원
계	301,400원
나고야~도야마 버스	4,300엔
도야마~나고야 버스	4,800엔
다테야마 숙박(2박)	15,133엔
나고야 숙박(1박)	5,145엔
알펜루트 티켓(1인)	8,240엔
기타 잡비(식사,기차)	15,000엔
계	52,618엔

오!내고향

경상북도 영주

‘선비의 고장’ 문화재·명승지 곳곳



전우벽
본회 회우
전 KBS 아나운서

저는 할머니 회갑 잔치날 태어나 온 동네가 떠들썩 한 날 다섯째 며느리인 어머니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을 푸시며 출산의 힘듦도 있고 네 덕분에 편안하셨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른 첫 이름은 우갑(遇甲)이었다. 대소가가 넓어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던 집안이라 큰덕안 채 창고에는 고기, 생선 등이 늘 걸려 있었다.

일꾼들도 집집마다 2~3명씩은 있었다. 아버지는 외출 시 장롱 위의 비스켓 몇 개씩을 주신 기억과 생일인가 어느 날 어머니가 양복같은 새 옷으로 막 차려 입혀주셔서 뽐내며 샴터에 나갔는데, 동그란 미나리 발 우물물에 형들 여럿이 개구리를 잡는다고 모여 섰기에 잘 안 보여 형들 다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터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쑥 빠져 내려가는데 형들이 손을 잡아당겨 간신히 건져 주었다. 그러나 다 젖은 옷에서 물이 팔팔...울며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매 맞은 일이며, 또 명절이면 또래끼리 모여 옷놀고, 모듬밥 지어먹기, 앞산 솔밭에서 감자 묻이 해 놓고 연못에서 수영 후 모여앉아 입이 시커멓게 까먹던 일, 수박 서리, 산의 급경사에서 모래사태 타기(소나무 꺾어 안장해서), 제기차기, 철사로 만든 썰매타기, 팽이돌리기, 자치기놀이 등등. 드디어 미운 일곱살 ‘영주국민학교’ 21번으로 우교달(40대) 담임선생님의 하나, 둘! 선창에 ‘셋! 넷!’ 고향!치며 따라가던 일, 플라타너스 그늘 운동장에서 공차기, 달리기, 운동회 등 잊을 수 없고 늘 학교까지 배래다 주셨던 아버지의 양조장 황서기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4학년 김준담임선생님 자취방에 같이 가서 심부름과 숙제 칭찬. 6학년 정희주 담임선생님의 습자시간, 미술시간, 풍금치며 동요 부르며 가르쳐주신 어른. 봄·가을 소풍, 신나는 운동회날 노트타는 재미, 또 빼놓을 수 없는 노일구 교장 선생님 - 항상 단정하신 정장차림에 중절모 쓰시고 지팡이 리듬 일정하게



부석사 무량수전



소수서원

짙으시며 미소띤 모습!
같은반 정병희 반장, 동네친구 황흥구, 모두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운 친구들이다. 그리고 가끔 학교에서 우유를 배급받아 알루미늄 도시에 찌서 과자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입에 빨고 다니기도 했죠.

슬을 피해 영주 휴천동 일대로 낙향해 96세까지 장수하시며 세월을 낚으셨다는 얘기.
그 외 몇 군데 소문난 곳을 소개하자면
▲부석사(浮石寺) : ‘무량수전(無量壽殿)’(최초의 목조건물)과 ‘조사당(祖

부석사 무량수전·소수서원 ‘관광 명소’

선비의 고장 영주(榮州)는 경북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 철탄산 품아래 영주 최초의 2층집과 우리나라 지도 모양의 연못 정원 등은 아름다운 추억이 서린 우리집, 딸린 텃밭이 넓어 거위 닭 오리 돼지까지 키우며, 한쪽에는 형님이 농구장, 배구장까지 만들어 놓아 오후나 주말이면 많이들 와서 경기도 하며 즐겼다.
눈만 돌리면 국립공원 소백산, 부석사, 희방사, 순흥 소수서원, 풍기 인삼, 무섬 외나무다리 등 모두가 소풍가던 곳 들이다.
요즘 ‘단종’ 영화가 나왔던데 沃川 全氏 세거지 사연은 단종이 왕위를 뺏기자 옥천에서 전희철(全希哲, 1425~1521) 호는 휴계(休溪) 선조가 집현전에서 박팽년과 통곡한 후 비

師堂) ‘석등(石燈)’ 외 국보가 여러 점 보존돼 있는곳으로 신라 676년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조계종 16교구이다. 중학교 때인가 ‘대한뉴스’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명주실로 뜬 바위(부석) 밑을 통과시키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
▲희방사(喜方寺) : 소백산 중턱(850m), 풍기읍 수철리, 신라시대 643년 두운 대사가 창건한 절로서 동종(銅鐘) 문화재와 특히 조선시대 불교 교리의 대중화를 위한 한글 번역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유물로 ‘훈민정음 언해본’ 목각판이 있고, ‘월인석보(月印釋譜)’ 등 다수의 한글 불서를 간행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칠대만법(七千萬法)’ - 1569년 간행된 불교 교리서로 ‘진

계(退溪)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紹修書院’이란 현관을 하사했다.
▲무섬 외나무 다리 : 육지 속의 섬 무섬! 지금도 그물로 고기 잡는 곳, 내 성천이 휘감아 섬이 된 무섬. 언제나 긴 ‘외나무 다리’하면 생각나는 곳.
▲鄭鑑錄 十勝之地 : 조선시대 사회의 난리를 피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거주 환경이 좋은 10여 곳의 피난처 이상향 중에 인삼의 고장 영주 ‘풍기 금계리’가 제일 먼저이고, 가까운 ‘봉화 운봉’과 ‘예천 금당실마을’이 꼽혀 주로 소백산, 태백산, 지리산 등 깊은 산간 분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외부 침입이 어려운 곳들로 이상향이자, 꿈꿨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제 생각해도 정겹고, 격이 있고, 자랑스러운 오! 내 고향 영주! 이루실! ㉠

이달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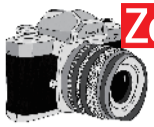
고향 노래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푸르고 푸른 고향의
소나무야!
정자 앞 냇가에 가제
잡고 놀며
뒷동산 종달새 지저귀는
노랫소리
아 꿈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자장가 소리
푸르고
푸른고향의소나무야!

전우벽

여세계, 사신여래, 성덕 등지 등 드물게 한글 번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서원(紹修書院) : 사적 제 55호. 1543년(조선 중종 38년) 세워진 최초의 사액서원.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이다. 재향 인물은 안향(安珦), 당시 풍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으로 성리학을 한반도에 처음 도입한 고려 때의 유학자 안향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에서 비롯된 곳인데 처음엔 순흥 ‘백운동서원’이라 불렀으나 1550년 퇴



Zoom in '이순신 동상 갑옷' 본뜬 BTS 무대 '명품' 의상



영웅이 영웅을 낳는다. 지난 3월 21일, 광화문 광장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서 BTS 7명의 젊은 사자들이 세기의 공연을 펼쳤다. 그 열기가 식기 전에 BTS의 컴백 무대에서 선보인 공연 의상이 뜨거웠던 공연만큼 또 다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상이 이순신 장군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이날 의상은 국제적 명성의 유명 브랜드 '송지오(SONGZIO)'. 이번 의상 디자인의 송지오는 조선시대 전통 복식을 재해석해 BTS 컴백 무대의 공연 의상을 전담 제작했다고 했다. '서정적인 갑옷(LYRICAL ARMOR)'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디자인에 담았다는 것. 그리고 보니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떠오른다.

이번 BTS공연에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새 영웅들의 모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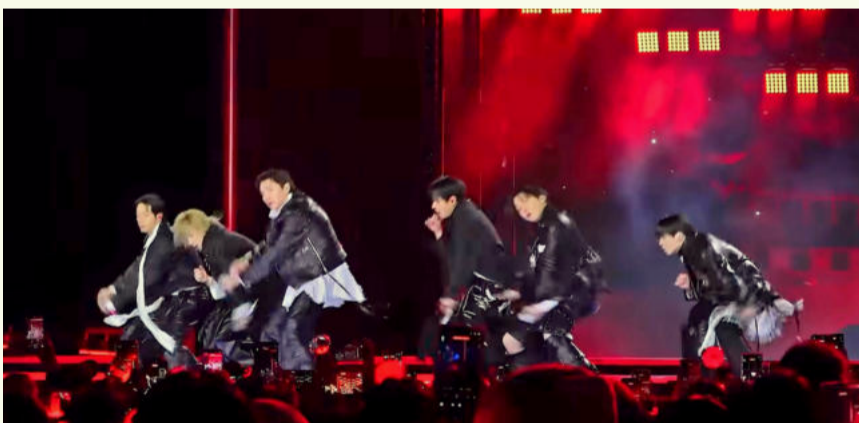
명품인생

멋진 인생의 흐름을 날려준 '우리들의 영웅'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 지구는 둥글고 크다. 옛적에는 지구의 반대편이라면 절대 가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머나먼 미지의 바다와 땅이었다. 동과 서가 서로 달라 사람 사는 법도 달랐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사를 하는 것도 판판이다.

유교와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동양의 인사 예법이 고개와 허리를 숙이는 수직적인 형태를 띠는 반면에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양의 인사 예절은 수평적인 형태를 보인다. 동양의 시각에선 나이와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자유분방하게 느껴지는 서양인들의 인사 예절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실은 서양의 예법에 엄연한 규칙과 어른에 대한 공경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서양사람들 또한 우리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주요인물이나 사건 자료 등을 통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난 2002월드컵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최고 최



선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 2002년부터 2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는 해프닝과 마주쳤다. 가깝든 멀든 지구의 반대편에서까지 동시에 환호를 터뜨린 사건, 사건이라면 대사건이었다. 바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이 공연은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소적인 지역에서 펼쳐졌지만 현장상황이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면서 지구를 진동시켰다.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만약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BTS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그래, 역시 지구는 돌고 있는 게 맞아. 이 지구가 굴러가는 웅장한 소리를 들어봐."

BTS가 공연을 벌이는 가운데 광화문 배경의 서울 야경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국이 수조 원대의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넷플릭스의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다시보기 콘텐츠는 공연 이튿날 바로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로 집계됐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는 이 프로가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홍콩, 인도, 일본, 필리핀,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집계 중인 93개국 중 무려 77개국 차트를 점령했다고 밝혔다. 이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3위권 안에 드는 맹위를 떨쳐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연 전날 발매를 시작한 다섯 번째 정규 앨범 '아리랑'(ARIRANG)은 2022년 6월 공개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발표한 완전체 신보. 이튿날 공연무대에서 타이틀곡 '스윔'(Swim) 등이 공개했다. 이 왁자지껄한, 이제는 세기의 공연이라 할 만한 빅쇼는 에미상, 그래미, 오스카,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쇼 등의 연출을 맡았던 '라이브 연출의 거장' 해미시 해밀턴 감독이 총괄을 맡았다.

이날 BTS는 세계인들에 한국인의 용기와 성실 그리고 예의예절, 무한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가슴에서 가슴으로 알려 준 진정한 '우리들의 영웅'이었다.☞

〈강이산·극작가〉

회우 칼럼

‘병력 감소’ 빈자리, 노병활용 정답 아니다

‘시니어 경계병’ 국방절벽 대안인가...세대갈등 불씨인가



전의식
본회 이사 ·
전 서울신문 부국장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연 30년 /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 나 죽어 이 흙속에 묻히면 그만이지”로 시작되는 ‘늙은 군인의 노래’는 장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한 부사관의 심정을 김민기 작사·작곡, 양희은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포크송이다.

병영에서 청춘을 바친 회한과 아쉬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가요는 1978년 발표된 직후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내 청춘> 등 일부 가사가 군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유신정권 국방부의 금지곡 제1호가 되었으나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대표적 민중가요로 되살아나 지금도 애창되고 있다.

그런데 노래 속의 주인공보다 더 고령의 노병들이 다시 제복을 입고 군부대 안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움직임이 첨예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국민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 출생률이 0.8%로 집계된 인구 절벽의 냉혹한 현실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핵심인 방위력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에서 현역병 신체검사 판정률을 85% 이상 끌어올려도 징집자원인 20대 청년 인구 자체가 부족해 전투력 충족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오래도록 60만 대군을 자랑하던 우리 군대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추락으로 11만 명이나 급감했다는 현실과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40만 명선도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타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 성일종 위원장은 전역한 자원자 위주로 대체해 비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이른바 ‘시니어 아미’ 활용론을 거론했다. 또 국방부와 국회 사무처도 국방인력 감소에 관한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얼마 전 국방부는 기자 브리핑을 통



155마일 휴전선 철책을 따라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병사.

해 “병력 부족 문제는 올해 국방중기계획의 하나로 연구해 왔으며 이 계획에 따라 유급 시니어 경계병을 위탁 방식으로 모집해 일부 부대에서 경계와 CCTV 모니터링 같은 경비 임무를 맡기는 시범 운영에 착수할 예

행 국방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요소다. 시니어 경계병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국내에 주둔 중인 미군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오래 전부터 미군은 평시에는 부대 외곽과 출입구의 경계는 40~50대 한국

시니어 예비역 채용이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노병의 애국심’이라는 감성적 용어보다 ‘민간 군 지원 인력’ 혹은 ‘특수직 군무원’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현역 병사들과의 생활 공간 및 지휘 체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세대 간 접점을 관리하고, 노병이 사회생활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특정 직무를 세밀하게 부여하는 포용력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니어 예비역 투입 논의는 우리 군이 지난 세대 병력 위주의 양적 군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중심의 질적 군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은퇴한 노병 활용만이 병력 절벽에 대한 대책은 아닐 것이다. 입영 장정 숫자가 매년 줄어드는 현실에서 나온 교육지책이라 본질적인 해결은 기대

저출산 영향 10년 후 ‘안보체계’ 위기

정”이라고 설명했다. 1949년 만 19세의 장정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징병제도가 생겨난 이후 최초로 거론되는 파격적인 과제를 놓고 국민의 시선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찬성론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니어 경계병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현실적이다. 우리 군은 병력 감소로 인해 최전방 경계부터 후방 지원까지 여러 분야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나, 30개월 안팎의 병영 근무 경험을 갖춘 6070 예비역들이 부대 주변 경비와 노무, 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의 임무를 맡는다면 현역 병사들은 드론 등의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 훈련과 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숙련도가 낮은 신병보다 오히려 경험 많은 시니어들이 특정 기술직이나 시설 관리에서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기회라고 강조한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건강한 노년층에게 국가 안보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과 애국심, 더 나아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세대 상생

인 경비전문 직원들에게 위탁하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미군이 직접 경계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시니어 경계병 설립에 반대하는 측이 우려하는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다. 우선 ‘세대 갈등’이다. 나이와 계급, 군번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상 집안의 어른적인 시니어가 병영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20대 병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으로 소통 장벽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도 ‘쫄대 문화’의 부활이나 지휘 체계의 혼선으로 이어질 경우, 군 기강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사회생활에서도 은퇴한 고령 인력이 부대에 투입되는 형태라서 건강, 체력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38선 지역을 비롯한 전후방 부대에서 경계 임무나 노역을 맡는 시니어 인력의 숙식 문제, 특히 전역 후 민간인으로 체질화된 신분이라 군부대 특성인 군사 기밀 유지와 보안 통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예상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하기 어렵다. 인구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5천만, 북한은 3천만 밑이라 절반 수준이다. 징병과 지원입대제도를 병용하는 북한은 남성의 복무기간이 10년, 여군은 5년 전후인데도 출산율은 1.79%로 우리보다 2배나 높다고 한다. 또 제대자에게는 취업과 대학 입학, 노동당 입당 등에 특혜를 제공하여 군 복무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입대 18개월 만에 예비군이 되는 우리와는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어렵다.

반대로 현대화된 무기 체제는 대한민국이 월등하나 시니어 경계병 도입은 입영자원 부족을 극복하려는 방편에 가깝고 자칫 군의 노후화를 불러오는 부분이라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병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논의를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됐다.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에 폐기된 군 가산점, 복무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고 현재의 합헌 판단으로 힘을 잃은 20대 여성의 병영 진입도 예외로 두지 말기를 바란다. ☞

냉면, 한국전쟁 후 온 국민 사랑받은 ‘겨울별미’

맛 순례 ③

북녘땅 평양·함흥·남포에서 즐겨 먹어



이병대
본회 고문
전 동아일보·KBS기자
본회 20, 21대 회장

냉면 애호가들이 크게 늘면서 요즘 어디에서나 냉면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이남지역에서 냉면을 찾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보면 냉면이 무슨 음식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냉면을 여름철 음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는 겨울 별미였다. 이북의 추운 겨울에 군불을 지펴 방바닥이 설설 부리나케 달아올라 땀까지 흐를 때 얼음이 동동뜨는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메밀사리를 넣고 말은 냉면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고 더위를 식히는 그림을 상상해보면 냉면이 왜 겨울철 음식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냉면은 메밀 또는 전분(감자, 고구마, 칩 등)으로 면을 뽑아 꿩고기 또는 쇠고기 육수나 동치미 국물에 말거나 국물없이 양념 고추장이나 들깨기름으로 비벼먹는 음식이다. 냉면 위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오방색(五方色)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계란 반쪽을 올리는데 계란 노른자는 오행 가운데 중심인 토(土)에 해당하며 임금의 옷도 노란색 일 정도로 고귀한 색이다. 계란의 백색은 오행 가운데 금(金)에 해당하며 진실, 순결, 삶 등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부터 백의(白衣)민족으로 흰색을 사랑했다. 평안도 출신 백석의 시 국수를 보면 냉면의 맛과 운치가 그대로 살아 묻어난다.

‘이 희끄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 겨울 밤 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땀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 꿩고기를 좋아하고 / 그리고 담배내음새, 탄수내음새 또 수육을 삶은 육수국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식방 찢찢 끓는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평양, 함흥냉면 이외에도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냉면이 발전했는데 사리원 냉면, 강계 냉면, 평남 냉면, 원산 냉면, 청진 냉면, 남포 냉면 등 지역 입맛에 맞는, 특징의 냉면들이 발전했다.



특히 해주 냉면은 한국전쟁 때 해주 피란민들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서 옥천 냉면이라는 새 이름으로 선을 보여 이름난 냉면으로 자리 잡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반도의 남쪽 서부 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에서도 일찍이 냉면이 등장했다. 진주 냉면은 엄격한 조리법으로 유명한데 육수는 말린 해산물로 우려내고 면은 메밀과 밀, 고구마, 보리 등을 섞어 뽑아 육전 등을 얹어 고급스럽게 담아낸다. 진주 냉면은 원래 교방음식으로 진주지방 양반들의 속풀이용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지금은 진주의 송기원 진주냉면, 산홍 등에서 맛볼 수 있으나 대중화에는 미흡하다. 이밖에도 요즘 인기

철종은 군사훈련에 참가한 장교들에게 냉면을 하사하기도 했다. 고종은 냉면을 특별히 좋아해서 냉면용 동치미를 따로 담그기까지 했다고 한다.

냉면 좋아하기로는 몇년 전 백세 넘어 작고한 김진섭 선배를 뵈 수 없다. 단골 음식점은 장충동 ‘평양면옥’, “냉면은 수육을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 수육 서너점만 그저 먹고 냉면 먹으라우.” 강한 평안도 엑센트에 냉면은 더 맛있고 시원했다.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떠나기 며칠 전 평양면옥에서 가진 송별회식에서 ‘미국 가면 평양냉면을 못 먹게 돼 그것이 걱정’이라고 말하던 선배가 눈에 선하다. 황천에 냉면집이 있을는지... 언론인회

갯불에 콩 구워먹듯, ‘마과람에 게는 감추듯’ 면을 후루룩 입 안으로 털어 넣는게 인상적이었다. “나는 몸이 빠름네다. 박치기가 비장의 무기지요.” 달변은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먹는다는 냉면 이야기에서 주먹으로 한세대 품미한 무용담까지 재미있게 엮어내는 바람에 빨리도 시간이 흘러갔다.

이제 다시 냉면의 본고장 북한의 평양은 어떤가 살펴보자. 지난 여러해 동안 남북한 교류시 많은 우리 측 인사들이 평양의 옥류관과 청류관에서 냉면을 맛보고 후일담을 남겼다. 이 두 음식점 냉면 육수는 무(無)맛에 가까운 습습한 맛이 맛있다고 한다. 사실 음식 맛의 최고의 경지는 격조 있

남한에선 진주냉면 양반들 속풀이용 출발 무병장수 기원 오방색 따라 계란 노른자 담아

있는 막국수도 냉면의 한 형태이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냉면을 즐겼다. 조선시대 밀가루는 고급 식재료로 귀했다. 때문에 국수의 기본재료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이었다. 특히 평야가 드물고 산(山)이 많은 북한에서는 메밀이 주곡에 가까웠다. 옛 기록들을 보면 평안도 또는 함경도에 유배간 사람들은 끼니마다 거의 메밀을 주 재료로 하는 식단이어서 메밀을 유배음식 또는 유배인들을 일찍 죽게 하는 음식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초에 평양 ‘한샘골’ 주막에서 냉면이 등장하고 조선조에는 동국세시기나 시의 전서(是議全書)에 냉면 조리법이 등장한다. 조선조 임금들도 냉면을 무척이나 즐겼다고 한다. 순조는 어느 겨울날 밤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 무관에게 냉면을 사오게 하여 먹었고

의 연장자 한영섭 선배와는 매달 평래옥에서 만난다. 한선배의 냉면 사랑도 대단하다. 삼동의 추운 날씨에도 냉면을 애호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 기억력에 놀라곤 한다. 기억에 남은 것은 해방후 최고의 협객 ‘시라소니’와의 냉면 추억이다. 70년대 중반 스포츠동아에 ‘시라소니’ 이성순 선생의 일대기가 연재되면서 크게 호평을 받던 때였다. 이 글을 연재하던 기자의 소개로 시라소니를 그의 단골 식당이던 남대문시장 안 평양냉면집 부원식당에서 만났다. 시라소니는 들던 대로 1m 80여cm의 큰 키에 이마에는 박치기 상처 흔적들이 훈장처럼 선명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육십대 초반으로 형형한 눈빛으로 압도하고 있었다. 시내에 나오면 고향 평양 음식이 그리워 부원식당을 찾는다고 했다. 냉면에 수육을 시켰는데 그야말로 ‘번

는 무 맛이다. 북한은 지난 2022년에 ‘평양냉면 품습’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한 바 있다. 오래된 애기지만 지난 90년대 초 백두산 관광 때 있었던 일이다. 백두산 천지 구경을 하고 부근 버스 정류장에 내려 올 때였다. 정류장 모퉁이에 ‘랭면’이라는 천이 펴려있는 포장마차가 보였다. 단숨에 달려가서 서서 한그릇을 해치웠다. 메밀사리를 백두산에서 잡은 꿩육수에 말은 냉면이었는데 그때 그 ‘연길 냉면’을 맛본 것이 그 여행에서 가장 잘한 일로 기억된다.

최근들어 시중에 다양한 냉면집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원조 냉면집들의 맛을 뛰어넘는 맛집들이 많이 눈에 띈다.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靑於藍). 다양한 가운데 맛집을 선택할 수 있는 재미, 이 또한 냉면 애호가들의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2.25 ~ 2026.3.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김경래 회우 찬조금 1,000,000원

(2024년 5월, 2024년 8월에도
1,000,000원씩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회비

송종문(2026) 30,000 김재홍(2026) 30,000 이보길(2026) 30,000
윤재홍(25,26) 60,000 권준희(2026) 30,000 최종철(2026) 30,000
문 청(26,27) 60,000 성낙오(2026) 30,000 정서구(2026) 30,000

회우 동정

이종세 본회 회장, 한국유도원 공로메달 받아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한국유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월 26일 재단법인 한국유도원 김정행 이사장으로부터 공로 메달과 공로패를 받았다.

대한체육회장과 용인대 총장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중식당 어양에서 열린 2026년 1차 이사회에 앞서 이 회장에 대한 메달 및 공로패 증정식을 갖고 “이 회장은 한국유도 재정 후원을 맡고 있는 한국유도원의 재원 확충에 공헌한 바 크다”며 시상 소감을 밝혔다.

유도 고단자인 이 회장은 2002년부터 한국유도원 이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의도 소재 한국유도원을 방이동 소재 현 위치로 이전, 매년 7억여 원의 임대 수입 등 1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유도원은 임대 수입 등 수익금을 매년 대한유도회(회장·조용철)의 유망선수 발굴 및 훈련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종세 회장이 김정행 한국유도원 이사장(오른쪽)으로부터 공로 메달과 공로패를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한국유도원 제공)

김진현·박석흥·봉두완 회우 관훈클럽 출판 지원 대상자 선정



김진현 회우



박석흥 회우



봉두완 회우

김진현(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박석흥(전 문화일보 국장) 봉두완(전 TBC앵커맨)회우 등 대한언론인회회우 3명이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2026

년 상반기 언론인 저술 번역 출판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영길 회우 손녀 미 육군사관학교 합격



박영길 회우

박영길 회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대리 겸 종합편집부장, 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전 머니투데이 이사 겸 편집인)의 손녀 박지인(19세)양이 최근 美육군사관학교(웨스트 포인트)에 합격했다. 박양은 아버지가 미 GM사의 在獨 지사에 근무하던 2007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이후 아버지가 GM 디트로이트 본사로 옮겨 근무하면서 초·중·고교 과정을 미국에서 이수한 후 육사에 응시,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이종문 회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129동 803호

회우가 낸 새책

권혁승 회우 '사친문학' 2025호



思親文學 2025호가 나왔다. 사단법인 백교문화선양회(이사장 권혁승, 본회 원로상임위원)가 펴낸 2025호엔 제16회 백교문학상 수상작과 심사평을 실었다.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특집에는 시 18편, 수필 16편, '효를 향한 기도'를 주제로 한 테마특집에는 시 17편, 수필 14편, 그리고 김건중의 소설 '장손'을 게재했다. 특별기고로 사모정공원을 건립해 강릉시에 기증한 권혁승회우의 '우리 어머니', 언론인 초대석에는 김진동 장석영 유한준 임종건 이형기의 수필이 소개되고 원로 문인들의 '부모님 생각'편에는 김태길의 '대범한 어머니 옹졸한 아들', 이호철의 '서낭당 돌무더기 옆을 지날때마다'를 전문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교문화선양회간 신국판 416쪽 값 15,000원

전영우 회우 '도산공원의 아침'



화려한 인기직업 방송사 아나운서 30년, 대학교수 30년, 저술 60년, 강의 및 강연 60년의 세월을 바쁘게 살아온 92세 전영우(본회 회우)씨가 일생의 이야기를 모아 산문집 '도산 공원의 아침'으로 펴냈다.

전문 12부로 나누어 제1부엔 윤길구 홍양보 최승주 등 선배 아나운서와의 이야기를 엮었고 제2부엔 이하윤 한상갑 김형규 이을환 이두현 박종홍 김기석 박종화 유지진 유지환 피천득 정범모 강윤호 이희승 이송녕 조윤제 박봉배 등 스승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제8부엔 산문집 '님의 교훈' 제9부엔 '내가 걷는 길 방송언론인 전영우' 제11부 제12부엔 에세이 '꽃상여' '소쩍새 울음' 등이 눈길을 끈다.

한국문학신문 간 전영우지음 신국판 416쪽 값 20,000원

만보회 용산전쟁 기념관 견기행사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3월20일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제20차 견기 행사를 호국의 전당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가졌다. 이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생생한 6.25 전쟁의 현장을 답사하며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한편 최 회장과 회원들은 만보회의 단합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 회원 복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결과 첫째 회원 생일에 케이크 선물, 둘째 애경사에 화환 전달, 셋째 연 2회 야유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리고 정회원은 25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3회 이상 불참한 문자 알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 회원은 강두모, 김기원, 김조영, 김흥운, 박교원, 설임윤, 안중우,



안홍렬, 임상학, 장 옥, 조명동,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총무 최영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행스님 (조계종 대종사, 월정사 부지주, 본회 명예회원) 3월16일 입적. 향년 84세.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국장 송 창 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튼튼하게
탄탄하게
든든하게

튼튼 탄탄 든든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론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